

발간등록번호

대전중, 라00022

월간 세종 경제

MONTHLY SEJONG ECONOMY

2018.
10.



인포그래픽

시·도 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현황

주요 경제 ISSUE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세종시 주요 경제 ISSUE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Economic Trends

고용안전망 : 소득보장과 능력개발기회

발간등록번호

대전중, 라00022

월간 세종 경제

MONTHLY SEJONG ECONOMY

2018.
10.



CONTENTS

총 합	4
요 약	5
인포그래픽스	6

I 세종시 경제동향 11

1. 고용	12
1) 노동 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12
2) 취업자	14
3) 직종별 취업자	17
4) 고용률	18
5) 실업자 및 실업률	19
2. 생산	20
1) 광공업 생산지수	20
2) 소상공인 경기지수	22
3) 신설법인	23
4) 공장 등록 현황	24
3. 물 가	25
1) 생활물가지수	25
2) 농산물 소비자가격	26
4. 부동산	27
1) 부동산 거래량	27
2) 부동산 가격지수	30
3) 주택 건설 실적	32
4) 건설 수주 현황	33
5)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34
5. 수 · 출입	35
1) 무역 수지	35
2) 수출	37
3) 수입	39
6. 금융	41
1) 수신	41
2) 여신	42
3) 어음부도율	43
7. 지역특성	44
1) 인구 순이동	44
2) 자동차 등록대수	46
3) 연료소비	47
4) 전력사용	48

II 경제 ISSUE & Trends 51

주요 경제 ISSUE	52
세종시 주요 경제 ISSUE	57
Economic Trends	59
부 록	67



세종시 경제동향



종합

- » 세종시 2018년 9월 고용률은 62.5%로 2017년 9월 보다 1.1%p 증가하였고, 2018년 8월 대비 보합이다. 지난 달 대비 세종시 15세 이상 인구는 2천명(1.3%) 증가하였으며 취업자는 1천명(0.7%) 증가하였다. 세종시 9월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0.2%p 감소하였다. 이는 전국의 3.6% 대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고용 상황은 양호한 편인 것으로 판단된다.
- » 생산측면에서는 광공업 생산, 출하, 재고지수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0.4% 증가, 출하지수는 전월 대비 1.1% 감소, 재고지수는 전월 대비 9.1% 증가하였다. 재고지수는 '17년 12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전월 대비 생산, 출하 지수는 약간 감소하였고, 재고 지수는 약간 증가하였다.
- » 9월 소상공인 체감지수는 전월 대비 8.3% 증가하였으며,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5.5% 증가하였다. 전월 대비 소상공인 경기의 전망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8월 신설법인 수는 7월 대비 증가하였으며 공장등록 수도 전월 대비 3개소 증가하였다. 세종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농산물 소비자 가격은 전월 대비 내린 품목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 9월 아파트 거래량을 포함한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16.2%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14.0% 감소하였다.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6.1% 감소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하였다. 2018년 8월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과 착공 실적은 모두 전년 동월,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2018년 9월 무역수지는 3,742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증가하였고, 수입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월 대비 무역수지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잡제품, 섬유류의 수출액이 전월 보다 증가하였고, 수입에서는 농림수산물 수입액이 전월 보다 증가하였다.
- » 2018년 7월 기준 수신은 전월 대비 증가하였으며, 여신도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 동월,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금융기관 수신도 전년 동월, 전월 대비 증가하였다. 공공·기타를 제외하고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모두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하였다. 예금은행의 공공·기타 대출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보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 » 2018년 8월 인구 순이동은 2,708명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월 유류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감소하였다. 가스소비는 전년 동월, 전월 대비 모두 감소하였다. 2018년 9월 전력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감소하였다.

세종시 경제동향



요약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9월 경제활동인구는 15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13만 6천명) 대비 16.2% 증가, 전월(15만 6천명) 대비 1.3% 증가 · 9월 비경제활동 인구는 8만 9천명으로, 전년 동월(8만명) 대비 9천명(11.3%) 증가, 전월(8만 8천명) 대비 천명(1.1%) 증가 · 취업자는 15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13만 3천명) 대비 15.8% 증가, 전월 대비 0.7% 증가 · 9월 고용률은 62.5%이며, 전년 동월 대비 1.1%p 증가, 전월 대비 보합 · 9월 실업자는 4천명으로 전월 대비 보합이며, 전년 동월 대비 33.3% 증가 · 9월 실업률은 2.3%로 전월 대비 0.2%p 감소, 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
<p>생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의 8월 광공업생산지수는 105.4로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 재고지수는 224.5% 증가 · 9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65.0로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 전월 대비 8.3% 증가, 전망경기지수는 105.0로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 전월 대비 35.5% 증가 · 8월 신설법인 수는 54개로 전년 동월 대비 22.7% 증가, 전월 대비 5.9% 증가 · 9월 공장등록 현황은 800개소로 전월 대비 3개소 증가
<p>물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의 10월 8개 품목 물가지수 평균은 111.7로 전년 동월 대비 7.8% 상승 · 곡물(29.5%), 채소(24.4%), 수산물(17.2%), 음료주류(4.0%), 일용품(2.1%), 가공식품(1.2%) 순으로 상승 · 과일(-9.8%), 육란(-5.7%) 순으로 하락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의 9월 전월 대비 16.2% 증가, 아파트 매매는 242건으로 전월 대비 19.8% 증가, 전월세는 1,227건으로 전월 대비 16.1% 감소 · 9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3.5로 전월 대비 0.2% 증가 · 9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99.4로 전월 대비 0.1% 증가 · 9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는 71.8로 전년 동월 대비 16.9% 증가, 전월 대비 23.2% 감소
<p>수출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의 9월 무역수지는 3,742만 달러 흑자로 나타남 · 9월 수출액은 9천 9백만 달러로 전월 대비 2.2% 감소, 품목별로는 잡제품, 섬유류의 수출이 증가 · 수입액은 6,171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9.9% 감소, 품목별로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이 증가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의 7월 예금 은행 수신 잔액은 10조 6천 5백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5% 증가, 전월 대비 9.3% 증가 · 예금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5조 7,893억 원으로 전월 대비 1.0% 증가 · 2018년 8월 여음교환액은 1,308억 원으로 전월 대비 6.2% 감소, 부도율은 0.00로 전월 대비 보합
<p>지역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8월 총 전입은 7,490명이며 총 전출은 4,782명으로 순이동은 2,708명, 외부지역에서는 대전으로부터 가장 많은 1,919명 전입 · 9월 자동차 등록대수는 144,668대로 전년 동월 대비 15.5% 증가 · 9월 전력사용량은 258,021MWh로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 심야전력이 전년 동월 대비 2376.7%로 가장 높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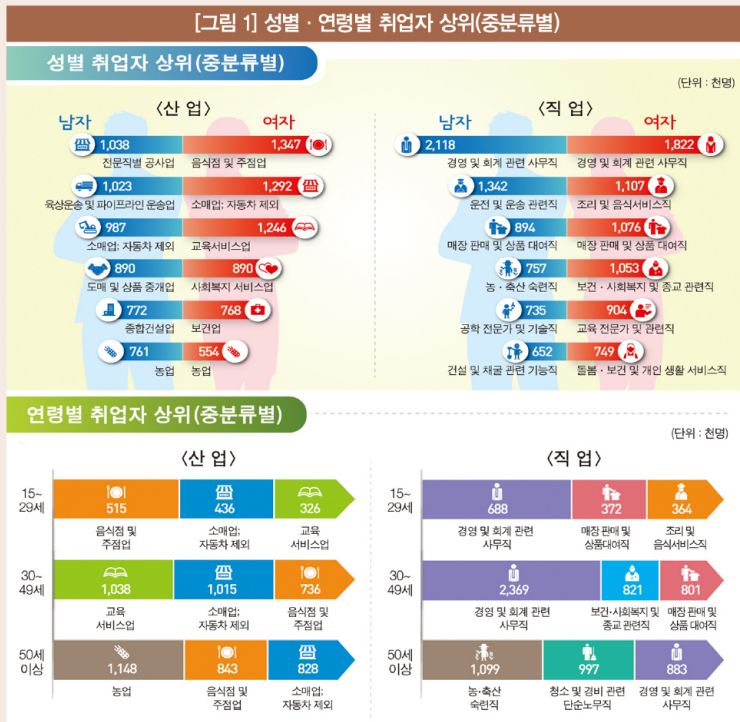
INFOGRAPHICS



사·도 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현황

통계청은 2018년 상반기(4월)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중 취업자에 대해 산업 및 직업별로 세부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국내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산업중분류별 취업자는 '소매업: 자동차제외' 227만 9천명, '음식점 및 주점업' 209만 5천명, '교육 서비스업' 183만 4천명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문직별 공사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순으로, 여자는 '음식점 및 주점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순으로 많았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15~29세는 '음식점 및 주점업', 30~49세는 '교육서비스업', 50세 이상은 '농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중분류별 취업자는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94만명,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197만명,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161만 4천명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순으로, 여자는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순으로 많았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15~29세, 30~49세는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50세 이상은 '농축산숙련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018년 10월 23일

특별·광역시 및 도별로 산업중분류별 취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는 '소매업; 자동차제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교육서비스업', 울산광역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세종특별자치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농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시·도별 산업중분류별 상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시도	전체 취업자	1위	취업자	2위	취업자	3위	취업자	4위	취업자	5위	취업자
서울	5,098	소매업; 자동차 제외	465	음식점 및 주점업	430	교육서비스업	399	도매 및 상품중개업	352	사업지원서비스업	237
부산	1,653	소매업; 자동차 제외	157	음식점 및 주점업	125	교육서비스업	112	도매 및 상품중개업	96	보건의업	92
대구	1,225	소매업; 자동차 제외	114	음식점 및 주점업	100	교육서비스업	99	보건의업	65	도매 및 상품중개업	60
인천	1,562	소매업; 자동차 제외	134	음식점 및 주점업	99	교육서비스업	95	전문직별 공사업	92	사업지원서비스업	80
광주	755	교육서비스업	67	소매업; 자동차 제외	61	음식점 및 주점업	57	보건의업	51	전문직별 공사업	48
대전	760	소매업; 자동차 제외	74	음식점 및 주점업	65	교육서비스업	6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4	도매 및 상품중개업	42
울산	57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8	음식점 및 주점업	5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2	소매업; 자동차 제외	39	교육서비스업	30
세종	14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2	교육서비스업	14	음식점 및 주점업	8	소매업; 자동차 제외	8	농업	7
경기	6,796	소매업; 자동차 제외	600	음식점 및 주점업	518	교육서비스업	459	도매 및 상품중개업	373	전문직별 공사업	299
강원	804	농업	88	음식점 및 주점업	7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7	소매업; 자동차 제외	66	사회복지서비스업	57
충북	889	농업	95	음식점 및 주점업	68	소매업; 자동차 제외	64	교육서비스업	5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3
충남	1,182	농업	155	소매업; 자동차 제외	80	교육서비스업	74	음식점 및 주점업	71	전문직별 공사업	58
전북	921	농업	153	교육서비스업	76	음식점 및 주점업	61	소매업; 자동차 제외	6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9
전남	968	농업	181	소매업; 자동차 제외	8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2	음식점 및 주점업	71	교육서비스업	51
경북	1,439	농업	223	소매업; 자동차 제외	119	음식점 및 주점업	11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8	교육서비스업	65
경남	1,733	농업	165	음식점 및 주점업	150	소매업; 자동차 제외	123	교육서비스업	10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0
제주	370	농업	49	음식점 및 주점업	34	소매업; 자동차 제외	3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7	교육서비스업	24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018년 10월 23일

특별·광역시 및 도별로 직업중분류별 취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이 가장 많았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농축산 숙련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¹⁾

[표 2] 시·도별 산업중분류별 상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시도	전체 취업자	1위	취업자	2위	취업자	3위	취업자	4위	취업자	5위	취업자
서울	5,096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879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416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301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88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83
부산	1,653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241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136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09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91	운전 및 운송 관련직	90
대구	1,225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65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100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79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74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72
인천	1,562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258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11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1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79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76
광주	755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02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61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56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50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9
대전	760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0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66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7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47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44
울산	57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92	기계 제조 및 관련직	4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0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36	운전 및 운송 관련직	30
세종	144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2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1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9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8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7
경기	6,796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057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466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386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353	운전 및 운송 관련직	349
강원	804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91	농축산숙련직	80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64	철소및경비관련 단순 노무직	64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58
충북	889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20	농축산숙련직	92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8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58	운전 및 운송 관련직	54
충남	1,182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41	농축산숙련직	138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73	운전 및 운송 관련직	73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66
전북	921	농축산숙련직	144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17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61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57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52
전남	968	농축산숙련직	172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06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75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61	운전 및 운송 관련직	53
경북	1,439	농축산숙련직	21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74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111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93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1
경남	1,733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213	농축산숙련직	157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23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1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107
제주	370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50	농축산숙련직	45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30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2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9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018년 10월 23일

1) 통계청, 보도자료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018년 10월 23일

월간 Monthly Sejong Economy

세종 경제

www.dsi.re.kr



I . 세종시 경제동향

1. 고용
2. 생산
3. 물가
4. 부동산
5. 수·출입
6. 금융
7. 지역특성

PART. 1

고 용



1 노동 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 2018년 9월 노동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는 2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21만 6천명)대비 3만 1천명 증가하였으며 전월(24만 4천명)대비 3천명 증가
- » 2018년 9월 경제활동인구¹⁾는 15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13만 6천명)대비 2만 2천명 증가하였으며 전월(15만 6천명)대비 2천명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9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4천명 증가(17.5%)하였으며, 여자는 6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명(14.3%) 증가
- » 2018년 9월 비경제활동인구²⁾는 8만 9천명으로, 전년 동월(8만명)대비 9천명(11.3%) 증가하였으며 전월(8만 8천명)대비 1천명(1.1%)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천명(3.7%)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5만 9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천명(11.3%) 증가

1)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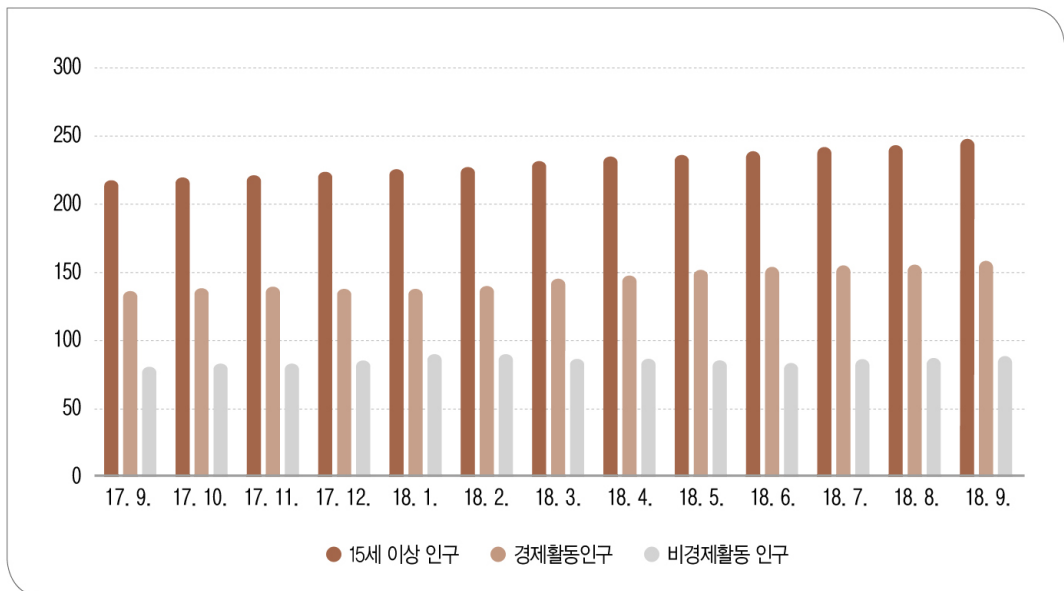
2)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노동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2017년 9월	2018년				증감률	
		6월	7월	8월	9월	전년	전월
15세 이상 인구	216	239	242	244	247	14.4	1.2
남성	108	119	120	121	123	13.9	1.7
여성	109	120	122	123	124	13.8	0.8
경제활동인구	136	154	156	156	158	16.2	1.3
남성	80	92	93	93	94	17.5	1.1
여성	56	62	63	64	64	14.3	0.0
비경제활동인구	80	85	86	88	89	11.3	1.1
남성	27	27	27	28	29	7.4	3.6
여성	53	59	59	59	60	13.2	1.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세종시 노동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현황]

2 취업자³⁾

» 2018년 9월 세종시 취업자는 15만 4천명

- 세종시 취업자는 전년 동월(13만 3천명)대비 15.8% 증가, 전월 대비 0.7% 증가
- 전국 취업자는 3705만 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2% 증가, 전월 대비 37.7% 증가

» 성별 취업자

- 세종시 남성 취업자는 9만 2천명, 여성취업자는 6만 1천명으로 전년 동월(남성 7만 8천명, 여성 5만 5천명)대비 각각 17.9%, 10.9% 증가함
- 전월 대비는 남성 1.1% 증가, 여성은 1.6% 감소

» 산업별 취업자

- 농림어업은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5% 감소, 전월 대비 포함
- 제조업은 2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 증가, 전월 대비 4.0% 증가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12만 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 전월 대비 0.8% 증가
 - 건설업은 9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6% 증가, 전월 대비 12.5% 증가
 -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만 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4.7% 증가, 전월 대비 276.2% 증가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7만 9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1.2% 감소, 전월 대비 83.3% 감소
 -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1만 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 전월 대비 포함

3) 취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동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성별/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2017년 9월	2018년				증감률	
			6월	7월	8월	9월	전년	전월
전 체		133	150	152	153	154	15.8	0.7
성 별	남 성	78	90	91	91	92	17.9	1.1
	여 성	55	60	60	62	61	10.9	-1.6
산 업 별	농림어업	8	6	7	7	7	-12.5	0.0
	광 공 업	20	25	26	26	26	30.0	0.0
	제 조 업	20	25	26	25	26	30.0	4.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05	119	119	120	121	15.2	0.8
	건설업	7	9	9	8	9	28.6	12.5
	도소매·음식숙박업	17	21	20	21	21	364.7	276.2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69	77	77	78	79	-81.2	-83.3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2	12	12	13	13	8.3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직업별 취업자

- 관리자·전문가는 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천명(28.2%)증가
- 서비스·판매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4천명(11.8%)증가
-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은 전년 동월 대비 3천명(9.4%)증가
- 사무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4천명(11.8%)증가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1천명(-12.5%)감소

[직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2017년 9월	2018년				증감률	
			6월	7월	8월	9월	전년	전월
전 체		133	150	152	153	154	15.8	0.7
산 업 별	관리자·전문가	39	48	49	49	50	28.2	2.0
	사무종사자	34	35	36	36	38	11.8	5.6
	서비스·판매종사자	20	24	24	23	24	10.0	4.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8	6	7	7	7	-12.5	0.0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	32	37	37	37	35	9.4	-5.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임금근로자는 12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9천명(15.9%) 증가함
- 비임금근로자는 2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천명(4.0%) 증가함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2017년 9월	2018년					증감률	
		6월	7월	8월	9월	전년	전월	
전 체	133	150	152	153	154	15.8	0.7	
임금근로자	108	123	124	126	127	17.6	0.8	
상용	84	98	100	102	103	22.6	1.0	
임시	20	22	21	21	21	5.0	0.0	
일용	5	3	3	4	3	-40.0	-25.0	
비임금근로자	25	27	27	26	27	8.0	3.8	
자영업주	20	23	23	22	23	15.0	4.5	
무급가족종사자	4	5	5	4	4	0.0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직종별 취업자

2018년 9월 세종시의 직종별 취업 현황

-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이 182건으로 가장 많고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148건), 영업·판매·운전·운전직(117건), 설치·정비·생산직(75건),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73건)으로 높은 편이며,
-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44건), 보건·의료직(38건), 건설·채굴직(16건),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10건)으로 나타남

[세종시 직종별 취업 현황]

단위 : 건

직 종	2018년 8월	2018년 9월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93	182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37	44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83	73
보건·의료직	24	38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9	10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177	148
영업·판매·운전·운전직	113	117
건설·채굴직	16	16
설치·정비·생산직	87	75
농림어업직	0	1
합 계	739	704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통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 : 1) 고용노동부는 기존 분류체계인「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을 개정·고시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함. 이에 본 지표는「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개정을 따름

2) 취업건수는 금월 기간에 워크넷에 취업 등록된 건수임

3) 취업건수는 공공근로가 포함된 수치이며, 구직자 거주 기준 지역임

4 고용률⁴⁾

2018년 9월 세종시 고용률은 62.5%이며, 전국은 61.2%임

- 세종시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1%p 증가, 전월 대비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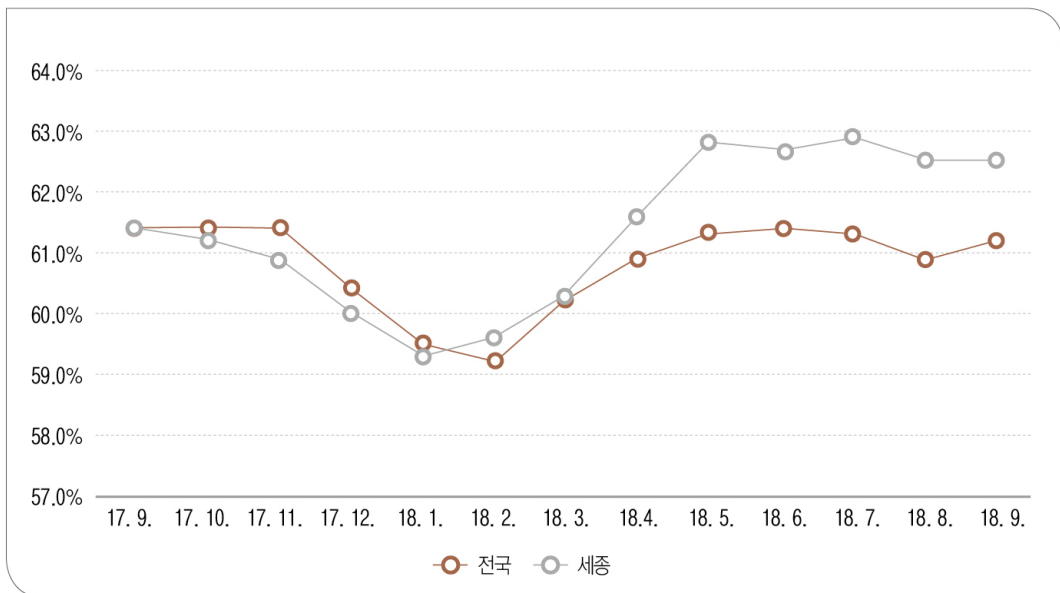
[고용현황]

단위: %, %p

구 분	2017년 9월	2018년				증감률	
		6월	7월	8월	9월	전년	전월
전 국	61.4	61.4	61.3	60.9	61.2	-0.2	0.3
세 중	61.4	62.7	62.9	62.5	62.5	1.1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 고용률은 전월 대비 약간 증가, 세종시 고용률은 전월 대비 보합



[전국 및 세종 고용현황]

4) 고용률 : 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 100

5 실업자 및 실업률

2018년 9월 실업자⁵⁾는 4천명

- 전월대비 보합, 전년 동월 대비 33.3%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성은 약 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보합, 여성은 약 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 증가

2018년 9월 실업률⁶⁾은 2.3%

- 전월대비 0.2%p 감소, 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함

성별 실업률

- 남성 실업률은 2.0%로 전월 대비 0.2%p 감소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함
- 여성 실업률은 2.8%로 전월 대비 0.3%p 감소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0.5%p 증가함

[성별 실업자 및 실업률 현황]

단위 : 천명, %p, %

구 분	2017년 9월	2018년			증감(천명, %p)		증감률(%)	
		7월	8월	9월	전년	전월	전년	전월
실업자	3	4	4	4	1	0	33.3	0.0
남 성	2	1	2	2	0	0	0.0	0.0
여 성	1	2	2	2	1	0	100.0	0.0
실업률	2.4	2.5	2.5	2.3	-0.1	-0.2		
남 성	2.4	1.5	2.0	2.0	-0.4	0.0		
여 성	2.3	4.0	3.1	2.8	0.5	-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실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6) 실업률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PART. 2

생산



1 광공업 생산지수

2018년 8월 기준 세종시 광공업 생산지수는 105.4,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05.8,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477.4

- 세종시 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0.4% 증가, 전국은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2.5% 감소
- 세종시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1.1% 감소, 전국은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1.6% 감소
- 세종시 재고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4.5%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9.1% 증가, 전국은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0.3% 증가

[광공업 생산지수]

단위 : 2010=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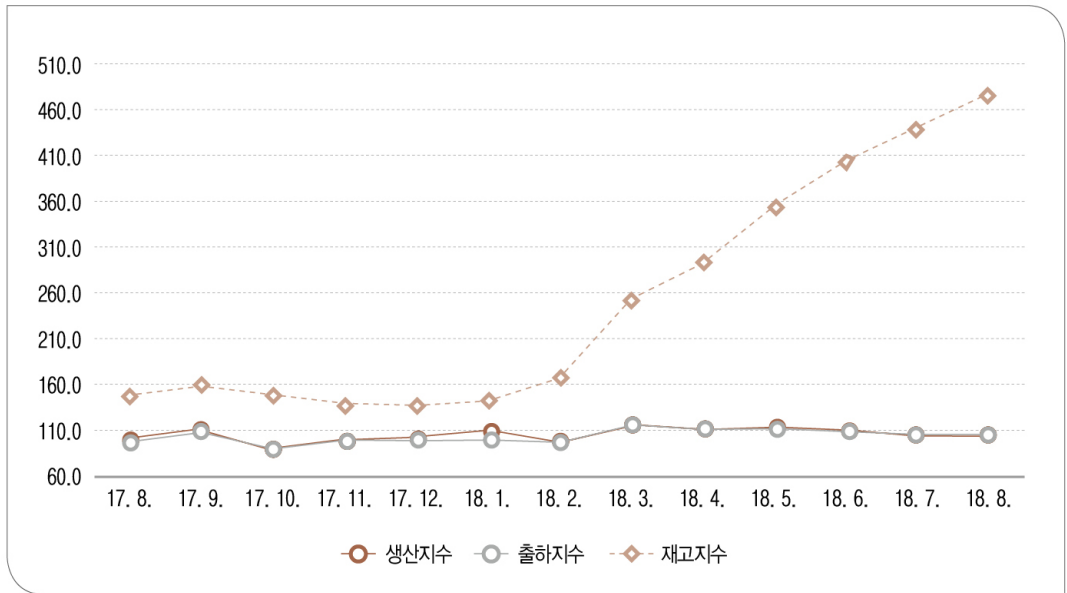
구 분	2017년 8월	2018년				증감률*		
		5월	6월	7월	8월	전년	전월	
전 국	생산	100.8	105.2	105.0	105.7	103.3	2.5	-2.5
	출하	98.6	102.9	102.3	100.9	99.6	1.0	-1.6
	재고	107.0	112.9	112.3	112.0	111.9	4.6	0.3
세 종	생산	100.9	109.6	108.8	105.0	105.4	4.5	0.4
	출하	98.4	110.7	110.1	107.8	105.8	7.5	-1.1
	재고	147.1	353.3	407.3	442.9	477.4	224.5	9.1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시도별 광공업생산지수)

주 : 1) 증감률은 동일지표 값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및 전월 대비 증감률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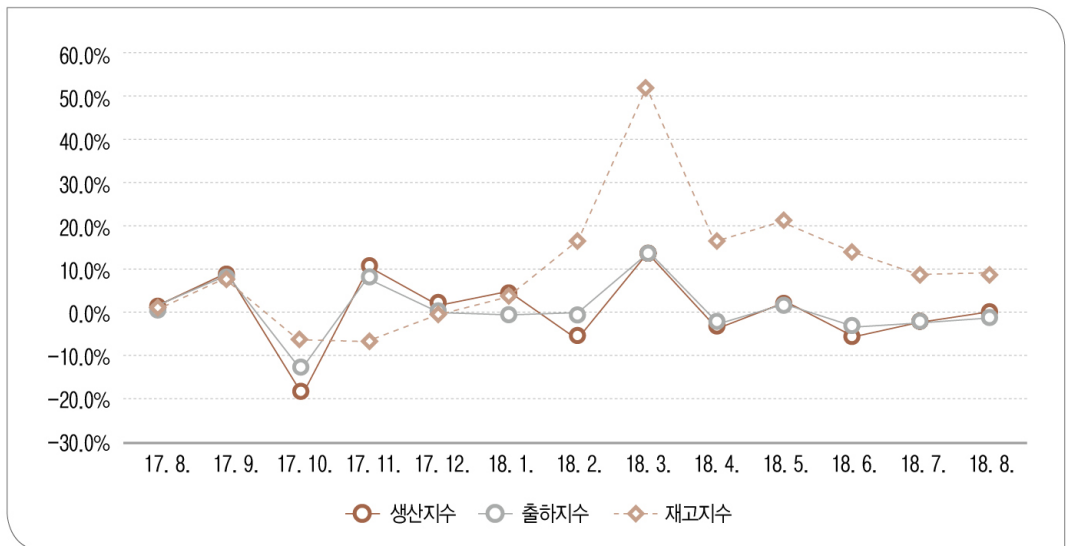
2) 매월 발표되는 지수는 잠정치로서 2개월 후에 확정치로 수정되며, 매년초(2월경) 실시되는 연간보정시 전년도 또는 그 이전의 원지수가 수정됨

❖ 세종시 광공업 생산지수와 재고지수는 증가, 출하지수는 감소



[세종시 광공업 생산지수 동향]

❖ 세종시 광공업 생산지수, 재고지수와 출하지수 모두 전월 대비 증감률 증가



[세종시 광공업 생산 증감률 추이]

2 소상공인 경기지수

2018년 9월 세종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65.0, 전망경기지수는 105.0

- 세종시 체감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 전월대비 8.3% 증가, 전국 전년 대비 5.7%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21.9% 증가
- 세종시 전망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 전월대비 35.5% 증가, 전국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34.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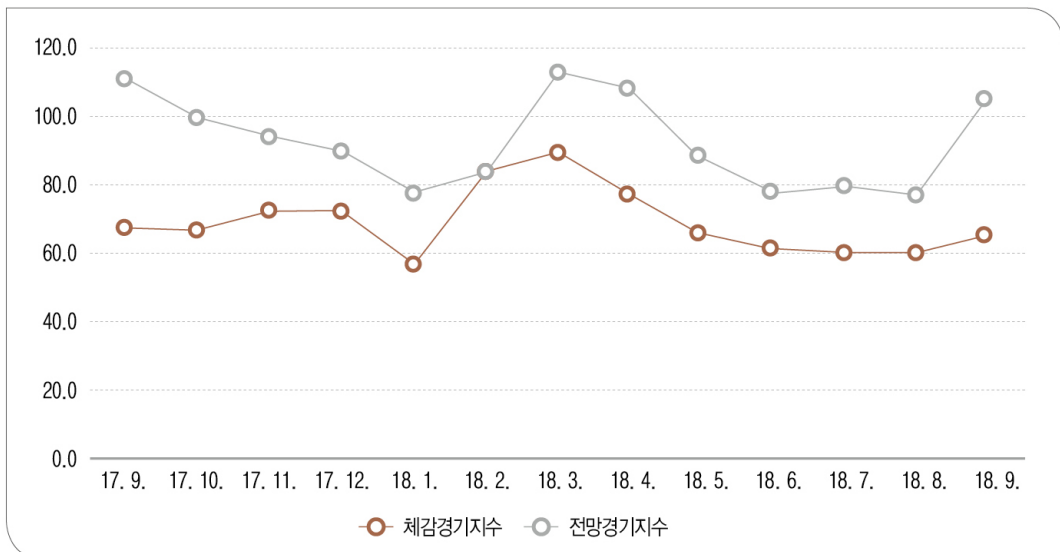
[소상공인 경기지수]

기준 : 100, 단위 : %p

구 분	2017년 9월	2018년					증감률		
		5월	6월	7월	8월	9월	전년	전월	
전 국	체감	72.0	71.6	62.2	52.5	55.7	67.9	-5.7	21.9
	전망	103.3	93.1	84.7	83.9	73.9	99.4	-3.8	34.5
세 종	체감	67.5	66.3	62.5	60.0	60.0	65.0	-3.7	8.3
	전망	111.3	88.8	78.8	80.0	77.5	105.0	-5.7	35.5

자료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세종시 체감경기지수, 전망경기지수 전월 대비 모두 증가



[세종시 소상공인 경기지수 동향]

3 신설법인

세종시 신설법인은 2018년 8월 기준 54개

- 세종시 신설법인은 전년 동월 대비 22.7% 증가, 전월대비 5.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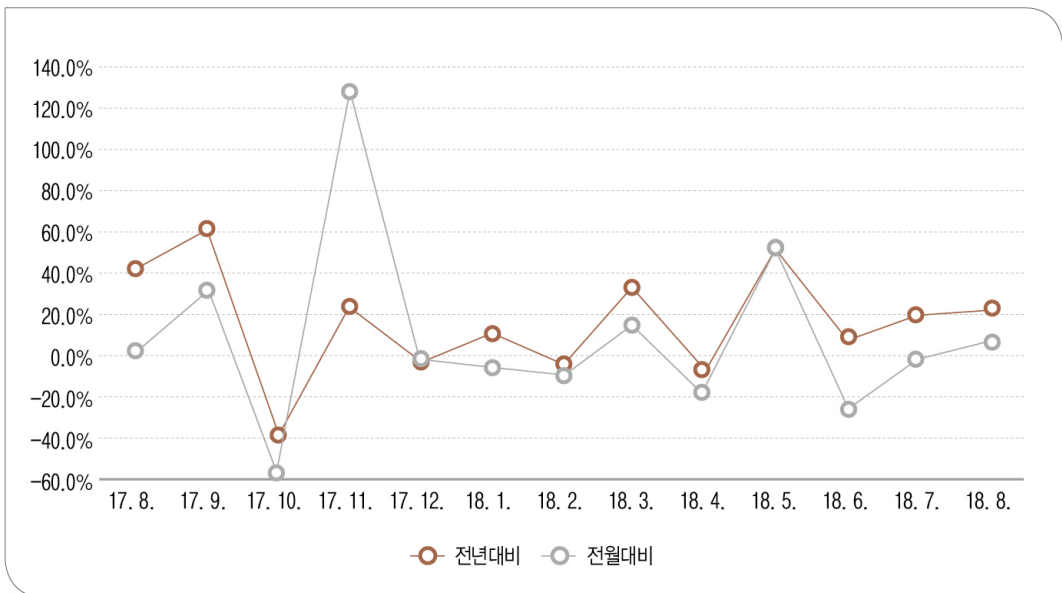
[세종시 신설법인수]

단위 : 개, %

구 분	2017년 8월	2018년			증감률	
		6월	7월	8월	전년	전월
신설법인수	44	52	51	54	22.7	5.9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월별 신설법인동향

세종시 신설법인 증감률은 전년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세종시 신설법인 증감률 추이]

4 공장 등록 현황

9월 세종시에 위치한 공장은 총 800개소로 전월 대비 3개소 증가

- 전자전기기계장비 3개소 증가, 금속조립 2개소 증가, 펄프종이·인쇄기록 1개소 증가하였고, 코크스·화학·의약 1개소 감소, 가구·기타 2개소 감소함. 공장등록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전자전기기계장비업(172개소), 다음으로 플라스틱 및 비금속(130개소), 식료·음료·담배업(124개소), 금속조립(104개소) 순으로 나타남

[세종시 공장 등록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8년 5월	2018년 6월	2018년 7월	2018년 8월	2018년 9월
공장등록 수		797	797	795	797	800
업 종 별	식료·음료·담배	125	125	124	124	124
	섬유·의복·가죽신발	22	22	22	22	22
	목재나무	24	24	24	24	24
	펄프종이·인쇄기록	52	52	53	52	53
	코크스·화학·의약	94	94	94	95	94
	플라스틱·비금속	130	131	130	130	130
	금속조립	102	103	101	102	104
	전자전기기계장비	168	167	168	169	172
	자동차운송장비	46	46	46	46	46
	가구·기타	34	33	33	33	31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PART. 3

물가



1 생활물가지수

» 10월 기준 세종시 생활물가지수는 채소, 육란, 일용품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품목은 곡물, 채소, 수산물, 음료주류, 일용품, 가공식품 순이고, 감소한 품목은 과일, 육란 순
- 전월 대비 증가한 품목은 곡물, 일용품, 음료주류 순이며, 전월 대비 감소한 품목은 육란, 수산물, 채소, 과일, 가공식품으로 나타남

[세종시 생활물가지수]

단위 : 2015=100, %

구 분	2017년 10월	2018년				증감률	
		7월	8월	9월	10월	전년	전월
곡 물	78	92	94	92	101	29.5	9.4
육 란	137	147	128	147	130	-5.7	-11.9
채 소	155	169	185	196	192	24.4	-1.8
과 일	63	53	54	58	57	-9.8	-1.7
수 산 물	55	64	56	70	64	17.2	-8.2
가공식품	106	108	108	107	107	1.2	-0.1
음료주류	111	116	116	113	116	4.0	2.8
일 용 품	124	130	118	117	127	2.1	8.7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2 농산물 소비자가격

10월 기준 세종시 농산물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배, 쌀, 당근, 양파 감자 순으로 상승하였고, 하락한 품목은 상추, 오이, 배추, 무, 파, 양배추, 사과, 파프리카 순

[세종시 농산물 소비자 가격]

단위 : 원, %

구 분	단위	전월 평균	10월 평균	등락률
쌀	일반계(20kg)	48,461	51,990	7.3
감자	수미(100g)	340	350	2.9
배추	고랭지(1포기)	4,980	3,701	-25.7
양배추	양배추(1포기)	3,574	3,151	-11.8
상추	적(100g)	1,669	990	-40.7
오이	다다기계통(10개)	9,724	6,729	-30.8
무	고랭지(1개)	3,421	2,736	-20.0
당근	무세척(1kg)	5,680	6,193	5.7
양파	양파(1kg)	1,640	1,704	3.9
파	대파(1kg)	5,245	4,424	-15.7
파프리카	파프리카(200g)	1,950	1,888	-3.2
사과	후지, 홍로(10개)	13,768	12,800	-7.0
배	신고, 원황(10개)	16,630	24,399	46.7

자료) 농산물유통정보, 월간 도·소매 정보

주 : 1) 9월 평균 가격은 2018. 10. 22. 기준임.

2) 배추, 무 소비자 가격은 1월~4월은 월동(중품), 5월~7월은 봄(상품), 8월~10월은 고랭지(상품, 중품), 11월~12월은 가을(상품) 가격임. 이로 인해 전월 등락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과일류 소비자 가격은 재배 품종의 차이로 사과는 9월~10월 가격이 홍로(10개)로 대체될 수 있으며, 배는 9월~10월 가격이 원황(10개)로 대체될 수 있음.

PART. 4

부동산



1 부동산 거래량

2018년 9월 세종시 주택 매매 거래량은 258건이며 이 중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42건

- 세종시 주택매매는 전년 동월 대비 14.0%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16.2% 증가, 전국 전년 동월 대비 9.7%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15.5% 증가
-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19.8% 증가, 전국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25.3% 증가

2018년 9월 세종시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27건

- 세종시 전월세 거래는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16.1% 감소, 전국 전년 동월 대비 9.9%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16.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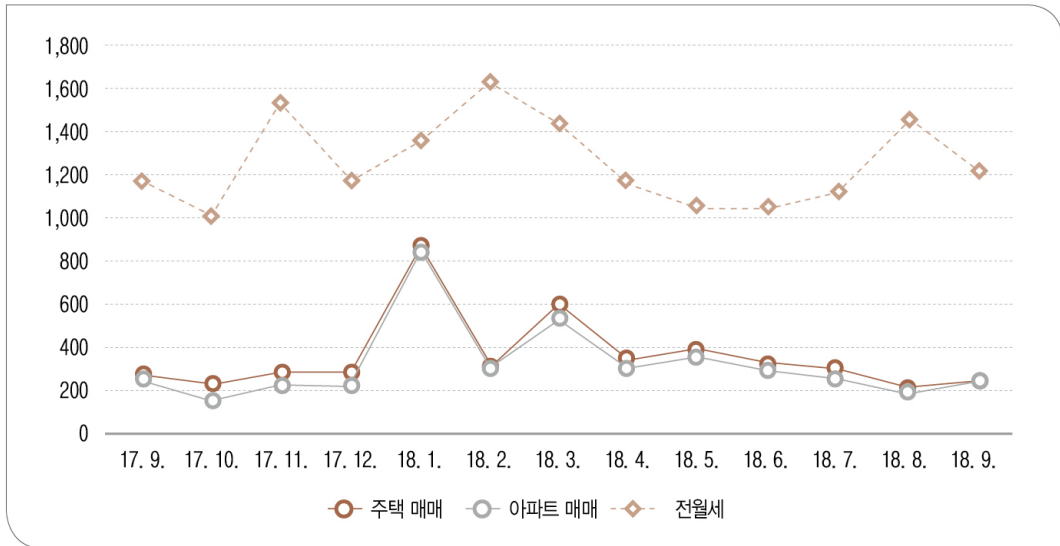
[부동산 거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7년 9월	2018년				증감률		
		6월	7월	8월	9월	전년	전월	
전국	주택 매매	84,350	65,027	63,687	65,945	76,141	-9.7	15.5
	아파트	54,953	40,367	39,353	42,894	53,754	-2.2	25.3
	전월세	141,430	139,318	149,458	152,089	127,425	-9.9	-16.2
세종	주택 매매	300	332	308	222	258	-14.0	16.2
	아파트	256	295	253	202	242	-5.5	19.8
	전월세	1,173	1,047	1,126	1,462	1,227	4.6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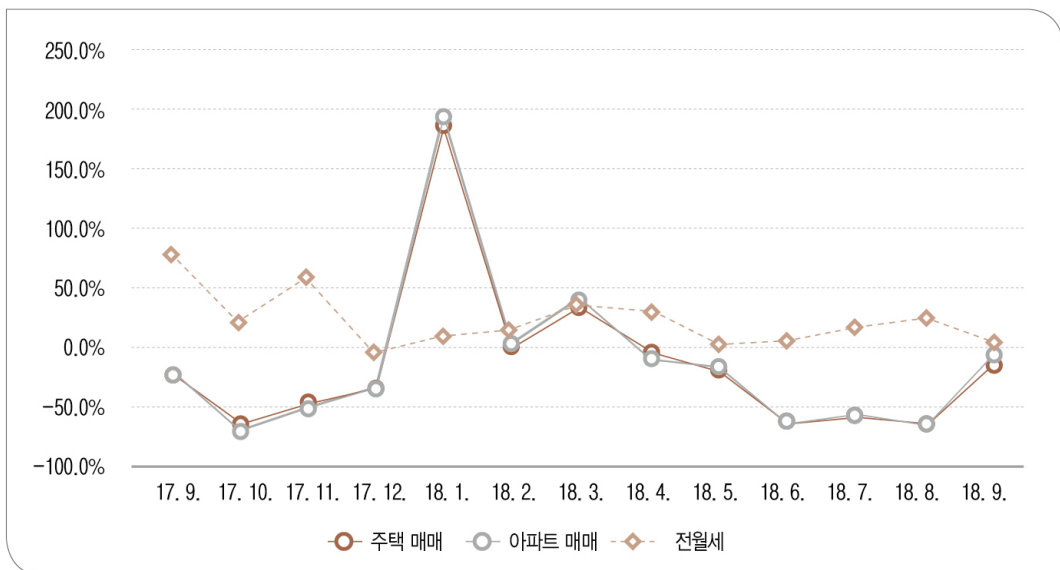
자료 : 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 현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뉴스, 월별 보도자료

❖ 세종시 주택매매, 아파트매매는 증가, 전월세 거래량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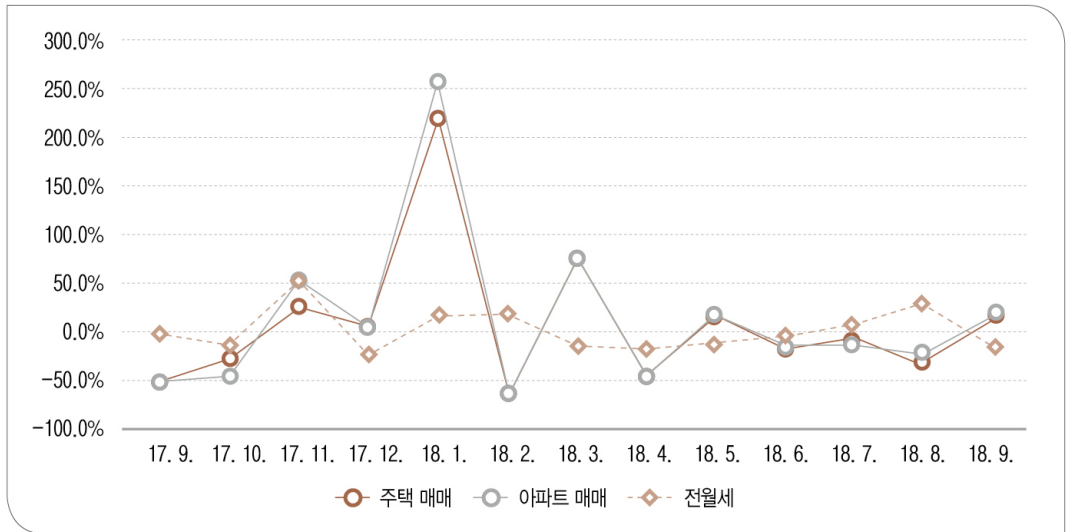
[세종시 부동산 거래 동향]

❖ 세종시 주택매매, 아파트매매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증가, 전월세 거래량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감소



[세종시 부동산 거래 전년 대비 증감률 추이]

❖ 세종시 주택매매, 아파트 매매의 전월 대비 증감률은 증가하였으며, 전월세 거래량의 전월 대비 증감률은 감소



[세종시 부동산 거래 전월 대비 증감률 추이]

2 부동산 가격지수

2018년 9월 세종시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103.5, 주택전세 가격지수는 99.4

- 세종시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0.2% 증가, 전국은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 전월 대비 1.0% 증가
- 세종시 주택전세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0.1% 증가, 전국 전년 동월 대비 보합, 전월 대비 0.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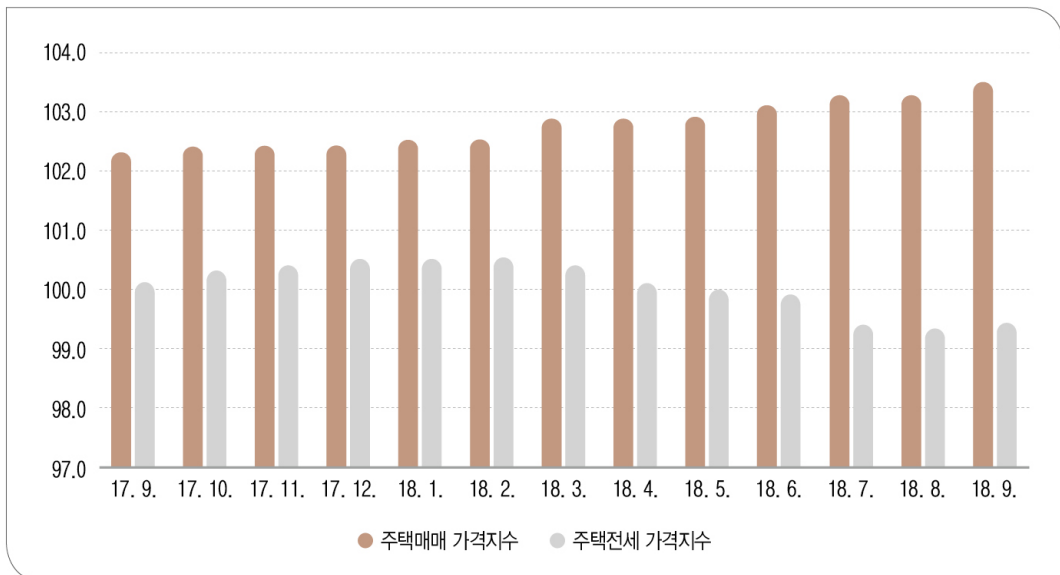
[부동산 가격지수]

단위 : 2015. 12. = 100. %

구 분	2017년 9월	2018년				증감률		
		6월	7월	8월	9월	전년	전월	
전 국	주택매매	102.3	103.7	103.8	104.0	105.0	2.6	1.0
	주택전세	102.0	101.9	101.9	101.9	102.0	0.0	0.1
세 종	주택매매	102.3	103.1	103.3	103.3	103.5	1.2	0.2
	주택전세	100.1	99.9	99.4	99.3	99.4	-0.7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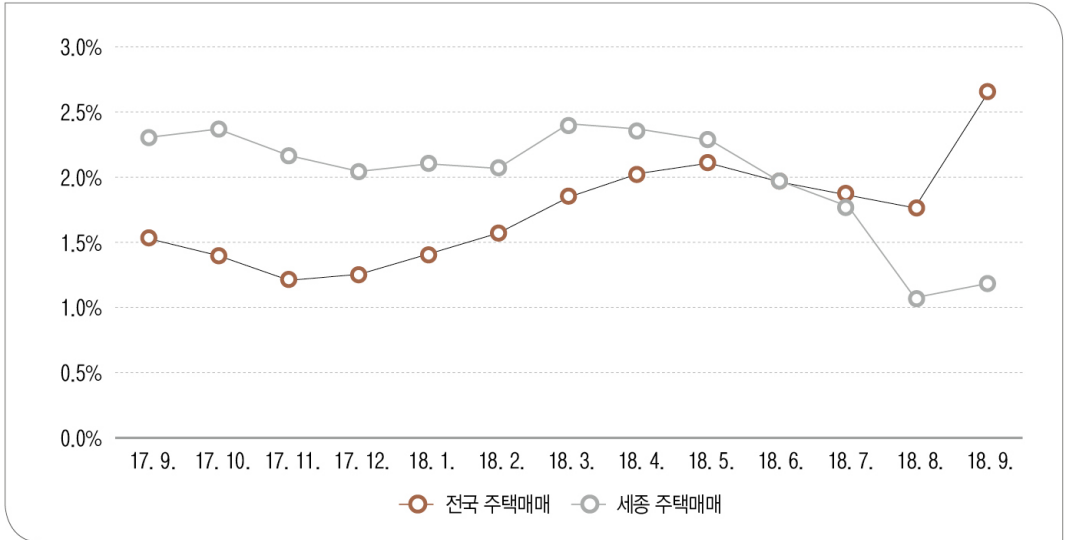
자료 KB부동산, KB주택가격동향

세종시 주택매매, 주택전세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모두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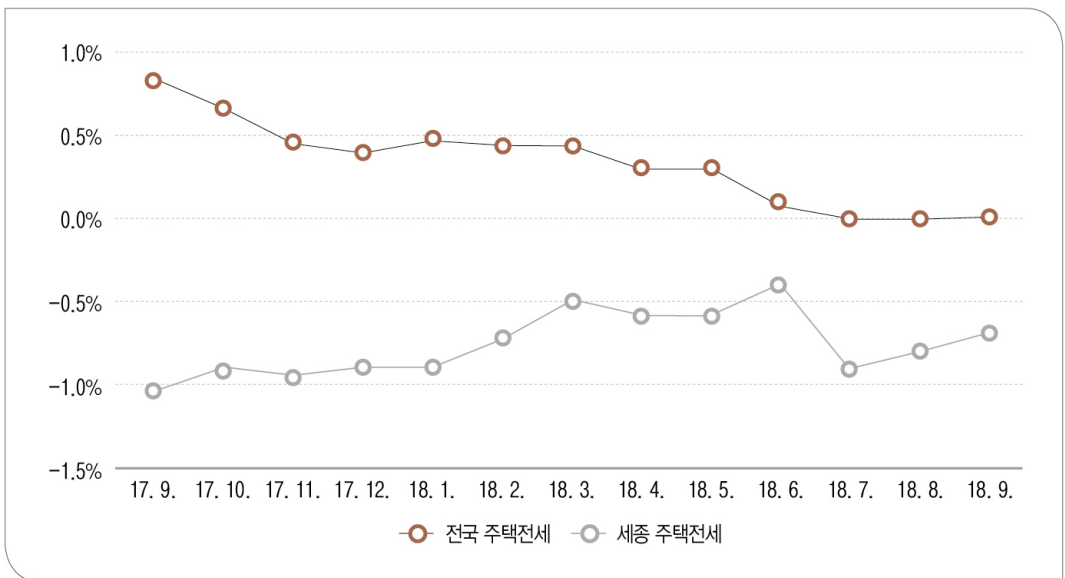
[세종시 부동산 가격지수 동향]

전국과 세종시 주택매매 가격지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모두 약간 증가



[주택매매 가격지수 전년 대비 증감률]

전국 주택전세 가격지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보합, 세종시 주택전세 가격지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약간 증가



[주택전세 가격지수 전월 대비 증감률]

3 주택 건설 실적

2018년 8월 세종시 건설 인허가 실적은 42건, 착공 실적은 33건

- 세종시 인허가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41.0%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15.2% 감소, 전국 전년 동월 대비 21.0%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34.3% 감소
- 세종시 착공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90.1% 감소, 전월 대비 19.5% 감소, 전국 전년 동월 대비 87.4%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48.1% 감소

[주택건설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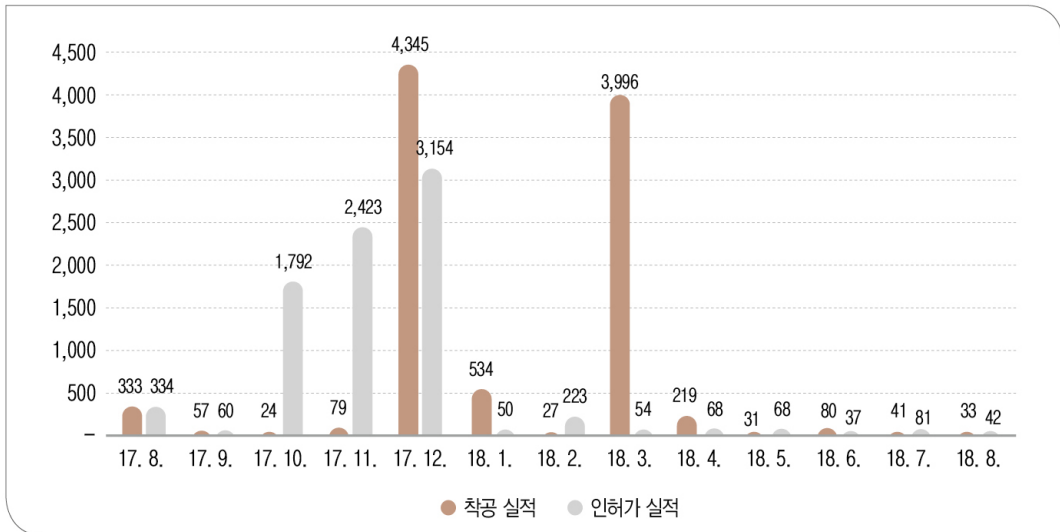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분	2017년 8월	2018년				증감률		
		5월	6월	7월	8월	전년	전월	
전국	인허가	48,502	38,919	44,278	58,295	38,299	-21.0	-34.3
	착공	51,554	52,665	35,707	35,830	30,393	-87.4	-48.1
세종	인허가	334	68	37	81	42	-41.0	-15.2
	착공	333	31	80	41	33	-90.1	-19.5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통계(인허가/착공)

주 : 인허가실적 및 착공실적은 월계를 기준으로 표시

세종시 8월 인허가, 착공 실적은 모두 감소



[세종시 주택건설 동향]

4 건설 수주 현황

❖ 세종시 2018년 8월 건설수주 실적은 총 약 22억원

- 전년 동월 대비 99.3% 감소, 전월 대비 98.1% 감소

❖ 공종별로는 건축은 2억 6천만원, 토목은 19억 4천만원

- 건축은 전년 동월 대비 99.3% 감소, 전월 대비 98.0% 감소
- 토목은 전년 동월 대비 99.2% 감소, 전월 대비 98.1% 감소

❖ 발주자별로는 공공발주는 2억 7천만원, 민간발주는 19억 3천만원

- 공공발주는 전년 동월 대비 99.9% 감소, 전월 대비 99.7% 감소
- 민간발주는 전년 동월 대비 90.3% 감소, 전월 대비 84.1% 감소

[세종시 건설 수주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8월	2018년				증감률		
		5월	6월	7월	8월	전년	전월	
총 건설 수주	295,983	19,463	45,836	114,754	2,197	-99.3	-98.1	
공 종 별	건 축 ¹⁾	38,512	4,658	35,687	12,788	259	-99.3	-98.0
	토 목 ²⁾	257,471	14,805	10,149	101,966	1,938	-99.2	-98.1
발 주 자 별	공 공	276,228	14,805	7,530	102,649	272	-99.9	-99.7
	민 간	19,755	4,658	38,306	12,105	1,925	-90.3	-84.1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주 : 1) 건축 :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
 2) 토목 : 목재나 철재,토석 따위를 사용하여 땅과 하천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도로나 둑, 교량, 항만, 철도, 상하수도 등)을 건설하거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
 3) 최근 2개월 값은 잠정치

5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9월 세종시 HBSI는 71.8이고 전국은 72.5

- 세종시 HBSI 전년 동월 대비 16.9%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23.2% 감소, 전국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4.9% 감소

[HBSI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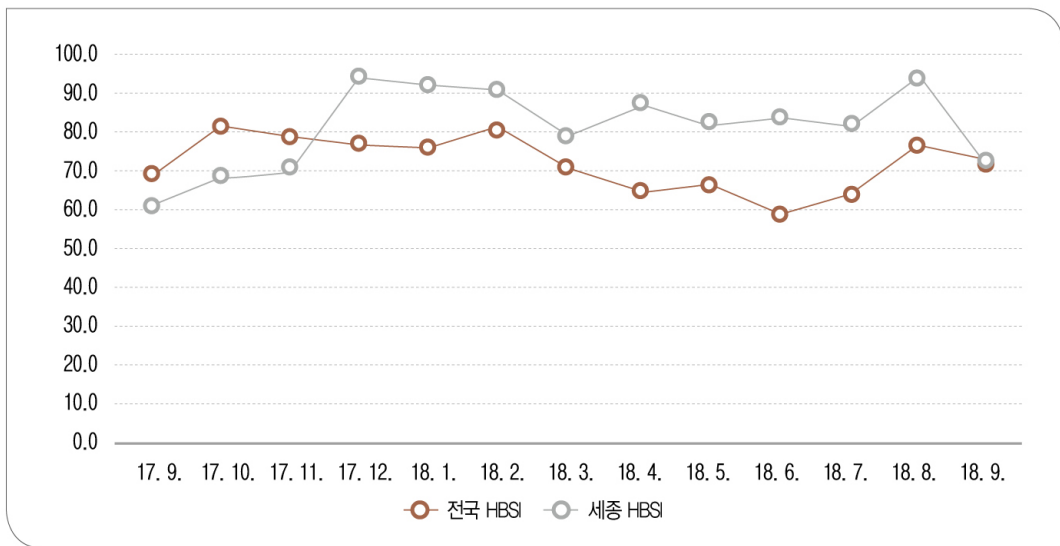
기준 : 100, 단위 : %

구 분	2017년 9월	2018년				증감률	
		6월	7월	8월	9월	전년	전월
전 국	69.8	59.3	63.6	76.2	72.5	3.9	-4.9
세 중	61.4	83.8	82.1	93.5	71.8	16.9	-23.2

자료 주택산업연구원

주 : HBSI는 주택경기실사지를 나타냄

전국과 세종시의 HBSI는 전월보다 모두 감소



[세종시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동향]

PART. 5

수 · 출입



1 무역 수지

» 세종시 2018년 9월 무역수지는 3,742만 달러 흑자

- 세종시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 동월 대비 240.3%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11.7% 증가, 전국의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545.4% 증가
- 세종시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2.2% 감소, 전국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1.2% 감소
- 세종시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49.9%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9.1% 감소, 전국 전년 동월 대비 1.6%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7.5% 감소

[무역수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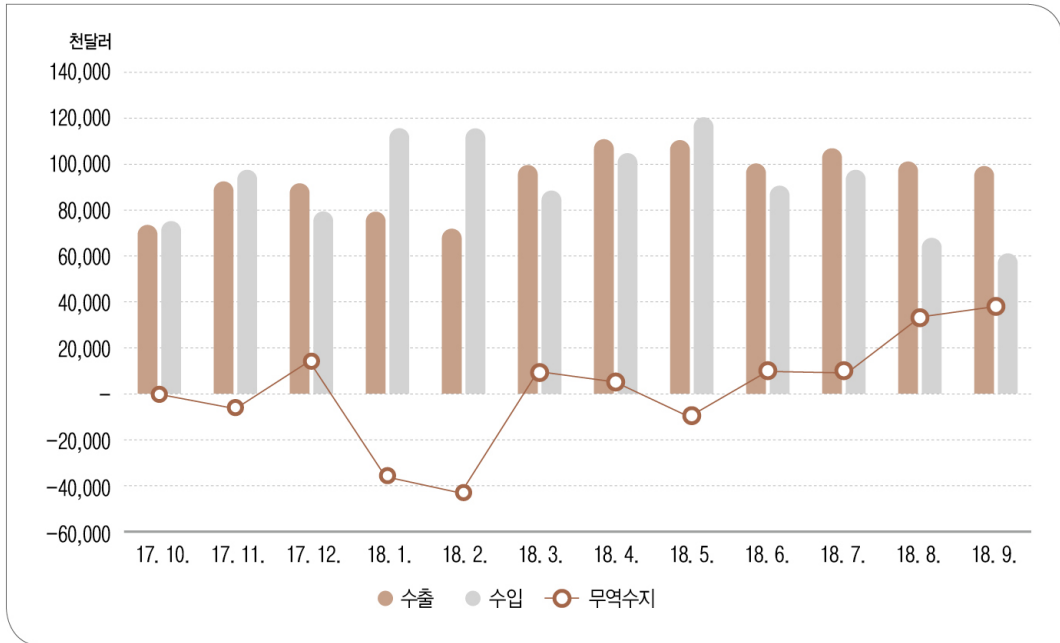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구 분	2017년 9월	2018년				증감률*		
		6월	7월	8월	9월	전년	전월	
전 국	무역수지	13,419,356	6,098,287	6,851,982	6,840,571	9,565,352	-28.7	499.7
	수 출	55,115,240	51,098,355	51,808,352	51,184,547	50,588,863	-8.2	-1.2
	수 입	41,695,884	45,000,068	44,956,369	44,343,976	41,023,511	-1.6	-7.5
세 종	무역수지	-26,682	9,992	9,044	33,495	37,424	240.3	11.7
	수 출	96,557	100,565	100,325	101,347	99,135	2.7	-2.2
	수 입	123,240	90,573	98,282	67,853	61,710	-49.9	-9.1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주 : 무역수지 현황의 당해년도 월간 수치는 연초 2월 중(2월 15일) 전년도 데이터가 확정되기 전까지 매달 변경되어 서비스됨

❖ 세종시 무역수지는 흑자임. 8월에 비해 수출의 감소폭보다 수입의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임



[세종시 무역수지 및 수·출입 동향]

2 수출

2018년 9월 기준 전국 수출액은 약 506억 달러, 세종시 수출액은 약 9천 9백만달러

- 세종시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 전월 대비 2.2% 감소
-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 품목은 광산물,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순이고, 감소한 품목은 농림수산물, 전자전기제품, 생활용품, 섬유류, 잡제품, 화학공업제품 순
- 전월 대비 수출 증가 품목은 잡제품, 섬유류 순이고, 감소한 품목은 기계류,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순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 천달러, %

구 분	2017년 9월	2018년				증감률	
		6월	7월	8월	9월	전년	전월
전 국	55,115,240	51,098,355	51,808,352	51,184,547	50,588,863	-8.2	-1.2
세 중	96,557	100,565	100,325	101,347	99,135	2.7	-2.2
농림수산물	2,885	4,458	2,130	4,475	1,622	-43.8	-63.8
광산물	2	12	-215	34	28	1300.0	-17.6
화학공업제품	24,622	27,516	30,863	29,133	24,428	-0.8	-16.1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8,375	9,354	9,661	9,118	8,632	3.1	-5.3
섬유류	2,548	1,537	1,551	1,771	2,038	-20.0	15.1
생활용품	510	569	681	577	391	-23.3	-32.2
철강금속제품	1,959	2,828	3,315	2,715	2,058	5.1	-24.2
기계류	16,839	27,417	29,630	244,345	32,941	95.6	-86.5
전자전기제품	38,615	26,617	29,314	29,066	26,830	-30.5	-7.7
잡제품	202	228	95	113	165	-18.3	46.0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주 : 1) 품목 구분은 MTI 1단위를 기준으로 함.

2) 수출액 및 수입액은 당월 기준으로 표시

3) 최근 3개월 평균 1백만 달러 미만 품목은 수출액 증감을 비교에서 제외함.

❖ 2018년 9월 기준 수출 상위 10개 품목의 수출액은 6천만달러

- 10개 품목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 전월 대비 4.4% 증가
-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 필름류, 합성수지, 제어용케이블 순이며, 감소한 품목은 전동축및기어, 기타플라스틱제품, 평판디스플레이, 전동기, 의약품, 인쇄회로 순
- 전월 대비 증가한 수출 품목은 제어용케이블,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인쇄회로, 전동기 순이며, 감소한 품목은 의약품, 기타플라스틱제품, 전동축및기어, 평판디스플레이, 필름류 순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 천달러, %

구 분	2017년 9월	2018년				증감률	
		6월	7월	8월	9월	전년	전월
합 계	61,579	56,446	67,303	57,790	60,330	-2.0	4.4
인쇄회로	12,726	9,116	10,469	10,703	10,927	-14.1	2.1
평판디스플레이	16,711	8,716	10,280	9,921	9,487	-43.2	-4.4
자동차부품	9,332	17,411	22,301	15,479	17,283	85.2	11.7
합성수지	7,190	7,237	9,293	7,342	7,895	9.8	7.5
필름류	4,144	5,134	6,266	5,959	5,945	43.5	-0.2
의약품	2,084	1,608	1,356	2,467	2,754	-14.6	-27.8
기타플라스틱제품	3,121	2,916	2,307	1,961	1,780	-54.2	-27.1
제어용케이블	1,396	1,250	1,246	1,153	1,430	2.4	24.0
전동기	3,639	2,727	3,512	2,343	2,393	-34.2	2.1
전동축 및 기어	1,236	331	273	462	436	-64.7	-5.6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주 : 1) 품목 구분은 MTI 4단위를 기준으로 함.

2) 수출액 및 수입액은 당월 기준으로 표시

3) 최근 3개월 평균 1백만 달러 미만 품목은 수출액 증감을 비교에서 제외함.

3 수입

2018년 9월 기준 전국 수입액은 410억 2천만달러, 세종시 수입액은 약 6,171만달러

- 세종시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49.9% 감소, 전월 대비 9.1% 감소
- 전년 동월 대비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기계류, 잡제품, 농림수산물, 광산물, 생활용품, 전자전기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순이고, 증가한 품목은 철강금속제품, 섬유류, 화학공업제품 순
- 전월 대비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농림수산물이고, 감소한 품목은 잡제품, 광산물,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섬유류,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 순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 천달러, %

구 분	2017년 9월	2018년				증감률	
		6월	7월	8월	9월	전년	전월
전 국	41,695,884	45,000,068	44,956,369	44,343,976	41,023,511	-1.6	-7.5
세 중	123,240	90,573	98,282	67,853	61,710	-49.9	-9.1
농림수산물	18,228	20,890	39,986	5,147	5,229	-71.3	1.6
광산물	159	353	144	199	53	-66.7	-73.4
화학공업제품	21,545	23,577	21,669	24,039	22,287	3.4	-7.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535	621	706	805	482	-9.9	-40.1
섬유류	2,305	2,617	2,587	3,045	2,542	10.3	-16.5
생활용품	1,665	1,994	1,801	1,607	1,238	-25.6	-23.0
철강금속제품	3,919	3,902	3,978	5,448	4,440	13.3	-18.5
기계류	48,953	11,490	5,129	6,530	5,938	-87.9	-9.1
전자전기제품	25,907	24,963	23,224	20,992	19,493	-24.8	-7.1
잡제품	25	166	65	42	6	-76.0	-85.7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주 : 1) 품목 구분은 MTI 1단위를 기준으로 함.
 2) 수출액 및 수입액은 당월 기준으로 표시
 3) 최근 3개월 평균 1백만 달러 미만 품목은 수입액 증감을 비교에서 제외함.

9월 기준 세종시 수입 상위 10개 품목의 수입액은 3천 2백만달러

- 상위 10개 품목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32.7% 감소, 전월 대비 1.0% 감소
- 전년 동월 대비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기타석유화학제품, 집적회로반도체, 펄프이며, 감소한 품목은 가축육류, 곡류, 평판디스플레이, 낙농품, 기타플라스틱제품,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기타정밀화학원료 순
- 전월 대비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곡류, 펄프, 기타정밀화학원료, 가축육류순이며, 감소한 품목은 낙농품, 기타석유화학제품,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집적회로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기타플라스틱제품 순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 천달러, %

구 분	2017년 9월	2018년				증감률	
		6월	7월	8월	9월	전년	전월
세 중	47,741	49,041	65,483	32,460	32,146	-32.7	-1.0
곡류	10,913	16,654	34,416	1,520	2,251	-79.4	48.1
평판디스플레이	14,620	8,618	9,497	7,948	7,116	-51.3	-10.5
기타정밀화학원료	7,301	5,515	5,954	5,734	6,604	-9.5	15.2
펄프	6,250	8,400	7,170	6,553	8,420	34.7	28.9
낙농품	2,393	1,963	2,215	1,770	1,207	-49.6	-31.8
가축육류	1,836	89	480	265	267	-85.5	0.8
기타석유화학제품	1,607	3,898	1,898	4,507	3,118	94.0	-30.8
기타플라스틱제품	211	206	180	183	182	-13.7	-0.5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1,143	807	1,679	1,368	996	-12.9	-27.2
집적회로반도체	1,467	2,891	1,994	2,632	1,985	35.3	-24.6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주 : 1) 품목 구분은 MTI 4단위를 기준으로 함.

2) 수출액 및 수입액은 당월 기준으로 표시

3) 최근 3개월 평균 1백만 달러 미만 품목은 수출액 증감률 비교에서 제외함.

PART. 6

금융



1 수신

» 2018년 7월 세종시 예금은행 수신 잔액은 10조 6천 5백억원

-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 동월 대비 56.5% 증가, 전월 대비 9.3% 증가

»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잔액은 11조 8천 6백억원

-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은 전년 동월 대비 15.3% 증가, 전월 대비 59.8% 증가

[세종시 수신 현황]

기간 중 증감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7월 잔액	2018년				증감률 ³⁾	
		5월	6월	7월	7월 잔액	전년	전월
예금은행 ¹⁾	68,075	-44	3,004	9,020	106,506	56.5	9.3
- 요구불 예금	8,121	-14	-110	22	6,753	-16.8	0.3
- 저축성 예금	58,903	36	3,122	-6	89,692	52.3	0.0
- 시장성 수신	1,051	-65	-8	4	1,061	1.0	0.4
비은행금융기관 ²⁾	102,924	27,012	-30,552	44,408	118,645	15.3	59.8

자료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월간 지역경제 통계

주 : 1) 예금은행 수신=요구불 예금+저축성 예금+시장성 수신

2)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에는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이 포함됨.

3) 세종시 여·수신현황의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감률은 말잔을 기준으로 계산함.

2 여신

2018년 7월 세종시 예금은행 여신 잔액은 8조 4천억원

- 예금은행 여신은 전년 동월 대비 13.1% 증가, 전월 대비 1.6% 증가

비은행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3조원

- 전년 동월 대비 15.7% 증가, 전월 대비 4.4% 증가

[세종시 여신 현황]

기간 중 증감액,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7월 잔액	2018년				증감률 ²⁾	
		5월	6월	7월	7월 잔액	전년	전월
예금은행 ¹⁾	73,978	1,209	1,319	1,335	83,660	13.1	1.6
기업대출	15,176	196	455	738	19,120	26.0	4.0
가계대출	52,270	1,015	863	597	57,893	10.8	1.0
공공·기타	6,532	-3	1	1	6,647	1.8	0.0
비은행금융기관	25,989	271	179	1,254	30,062	15.7	4.4

자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월간 지역경제 통계

주 : 1) 예금은행 여신=기업대출+가계대출+공공·기타

2) 세종시 여·수신현황의 전년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감률은 말잔을 기준으로 계산함.

3 어음부도율

2018년 8월 기준 세종시 어음교환액은 1,308억원, 어음부도율은 0.00

- 어음교환액은 전년 동월 대비 65.2% 증가, 전월 대비 6.2% 감소
- 어음부도액, 어음부도율 모두 전월 대비 보합

[세종시 어음 부도율]

단위 : 천만원, %

구 분	2017년 8월	2018년				증감률	
		5월	6월	7월	8월	전년	전월
교환액	7,920	11,750	15,000	13,940	13,080	65.2	-6.2
부도액	0.012	0.000	0.000	0.000	0.000	-100.0	-
부도율	0.020	0.000	0.000	0.000	0.000	-100.0	-

자료)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월간 지역경제 통계

PART. 7

지역특성



1 인구 순이동

8월 기준 세종시 인구 순이동은 2,708명

- 세종시 인구 순이동은 전년 동월 대비 4.1% 감소, 전월 대비 26.1% 증가
- 전입인구는 전월 대비 증가, 전출인구는 전월 대비 감소
- 전입인구는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서울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인구 순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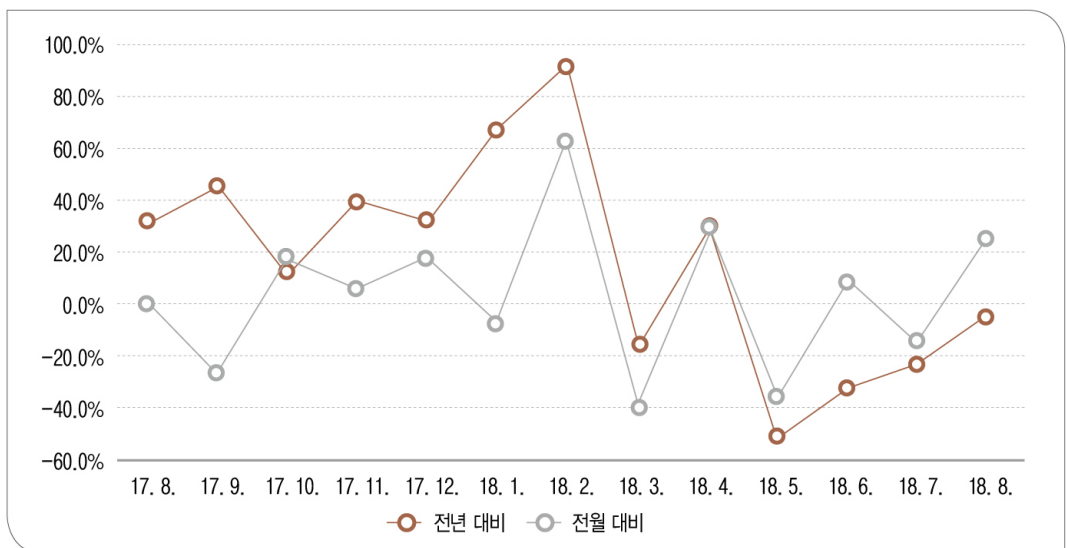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2017년 8월	2018년				증감률	
		5월	6월	7월	8월	전년	전월
순 이동	2,825	2,327	2,525	2,147	2,708	-4.1	26.1
총 전입	7,536	6,498	7,023	7,101	7,490	-0.6	5.5
서울특별시	556	492	408	470	452	-18.7	-3.8
부산광역시	62	56	61	78	79	27.4	1.3
대구광역시	62	48	49	68	120	93.5	76.5
인천광역시	106	77	96	89	108	1.9	21.3
광주광역시	67	75	64	58	61	-9.0	5.2
대전광역시	1,963	1,628	1,619	1,597	1,919	-2.2	20.2
울산광역시	23	19	20	25	40	73.9	60.0
세종특별자치시	2,351	2,332	2,730	2,707	2,520	7.2	-6.9
경기도	637	490	515	551	623	-2.2	13.1
강원도	58	52	74	51	71	22.4	39.2
총 전출	4,711	4,171	4,498	4,954	4,782	1.5	-3.5

구 분	2017년 7월	2018년					증감률	
		4월	5월	6월	7월	전년	전월	
순 이동	2,825	2,327	2,525	2,147	2,708	-4.1	26.1	
총 전입	7,536	6,498	7,023	7,101	7,490	-0.6	5.5	
충청북도	561	431	479	521	530	-5.5	1.7	
충청남도	663	497	576	497	519	-21.7	4.4	
전라북도	154	81	102	127	127	-17.5	0.0	
전라남도	58	51	45	55	85	46.6	54.5	
경상북도	91	76	69	111	101	11.0	-9.0	
경상남도	97	68	85	72	94	-3.1	30.6	
제주특별자치도	27	25	31	24	41	51.9	70.8	
총 전출	4,711	4,171	4,498	4,954	4,782	1.5	-3.5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세종시 인구 순이동 추이를 보면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증감률 증감률 모두 증가



[세종시 인구 순이동 증감률 동향]

2 자동차 등록대수

2018년 9월 기준 세종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144,668대

- 전년 동월 대비 15.5% 증가, 전월 대비 0.9% 증가

[세종시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

구 분	2017년 9월	2018년				증감률	
		6월	7월	8월	9월	전년	전월
합 계	125,270	140,504	141,836	143,342	144,668	15.5	0.9
승 용	106,369	120,797	121,991	123,416	124,711	17.2	1.0
승 합	4,057	4,200	4,226	4,238	4,238	4.5	0.0
화 물	14,581	15,197	15,306	15,376	15,407	5.7	0.2
특 수	263	310	313	312	312	18.6	0.0

자료 통계청,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3 연료소비

2018년 7월 세종시 유류소비량은 13,696kl이고 가스소비량은 8,233천m³

- 유류소비량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 전월 대비 4.5% 감소
- 가스소비량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 전월 대비 11.2% 감소

[세종시 연료소비 현황]

단위: kl, 천m³, %

구 분	2017년 7월	2018년				증감률		
		4월	5월	6월	7월	전년	전월	
유 류	합 계	13,875	14,380	14,151	14,625	13,696	0.7	-4.5
	휘발유	3,702	3,341	3,454	3,476	3,675	-0.7	5.7
	경유	9,819	9,877	10,229	10,535	9,621	-2.0	-8.7
	등유	232	1,089	366	262	229	-1.3	-12.7
	병커C유	122	73	102	352	444	263.9	26.1
가 스	합 계	8,301	10,690	9,904	9,269	8,233	-0.8	-11.2
	프로판	1,849	2,614	2,601	2,189	1,721	-6.9	-21.4
	부탄가스	1,314	1,190	1,244	1,167	1,223	-6.9	4.8
	도시가스	5,138	6,886	6,059	5,913	5,289	2.9	-10.6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통계월보, 한국석유공사, 국내석유정보

주 :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유류 및 프로판, 부탄가스 통계는 잠정치로서 연간 국내석유수급통계 확정 전까지는 조정될 수 있음. 또한 월간 도시가스 통계는 매월의 가매출실적을 잠정 집계한 것으로 연말 결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전력사용

2018년 9월 세종시 전력사용량은 258,021 MWh

-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 전월 대비 9.7% 감소

[세종시 전력사용 현황]

단위 : MWh, %

구 분	2017년 9월	2018년				증감률	
		6월	7월	8월	9월	전년	전월
합 계	245,761	242,180	256,799	285,846	258,021	5.0	-9.7
가로등	2,313	2,278	2,222	2,396	2,491	7.7	4.0
교육용	5,224	5,222	5,759	5,788	6,046	15.7	4.4
농사용	6,021	5,899	6,392	9,665	7,583	25.9	-21.5
산업용	148,813	143,115	147,577	145,622	140,093	-5.9	-3.8
일반용	45,945	2,812	1,926	1,495	1,591	-96.5	6.4
주택용	35,566	47,036	54,231	63,594	53,703	51.0	-15.6
심 야	1,878	35,818	38,692	57,285	46,511	2376.7	-18.8

자료 한국전력(KEPCO), 전력통계속보

월간 Monthly Sejong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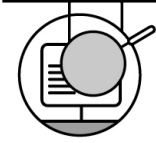
세종 경제

www.dsi.re.kr



II . 경제 ISSUE & Trends

- 주요 경제 ISSUE
- 세종 주요 경제 ISSUE
- Economic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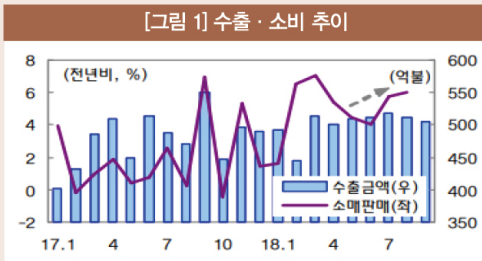
주요 경제 ISSUE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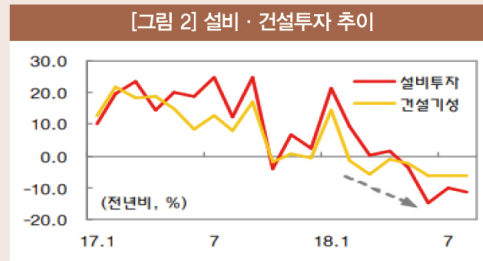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2018. 10. 24.)에서 인용하여 재구성

» 최근 고용·경제 동향

투자 부진이 지속되며 경제활력과 고용창출력이 저하되고 있다. 수출·소비 등은 견조하나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급속히 위축되었다. 제조업 업황의 불확실성 확대와 반도체 투자 일단락 등으로 우리경제 성장능력·일자리와 직결된 기업 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창출력 높은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물투자 둔화, SOC 위축 등으로 부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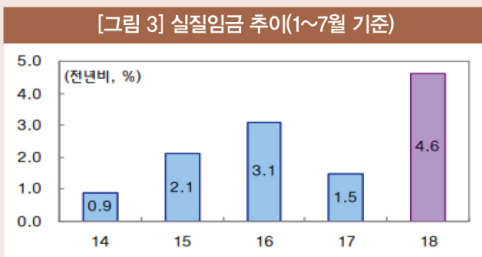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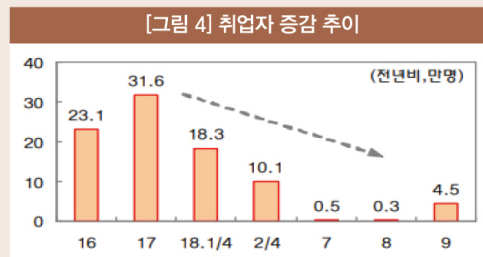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고용은 상용직 비중 증가(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17.1~8)67.3 → ('18.1~8)68.6), 실질임금 상승 등으로 질적 측면은 개선되었으나, 하반기 취업자 한 자릿수 증가 등 양적 어려움은 심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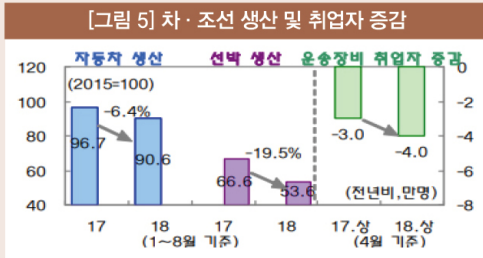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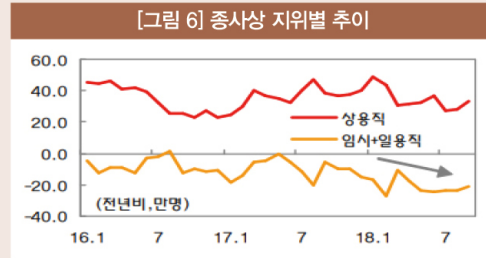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또한 구조·경기·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작용하며 고용창출력이 위축되고 있다. 자동차, 조선 등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고용의 어려움이 확대되었으며, 건설업 및 숙박음식·도소매 등 일자리 효과가 큰 내수 업종 위축으로 관련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또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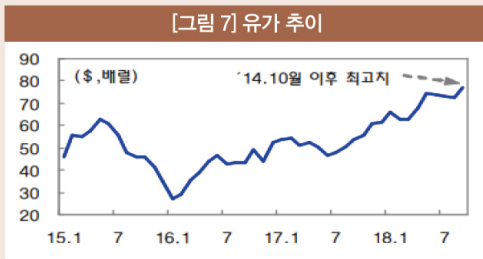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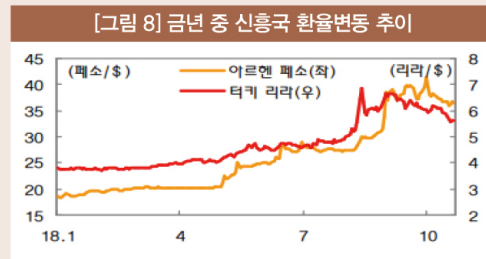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그리고 대외 리스크 확대 등으로 향후 고용·경제상황이 추가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심화, 중국경제 둔화, 유가상승 등 대외리스크 확산으로 수출·내수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이 심화될 시 실물·금융 영향의 우려가 있다.



자료 : 석유공사, 두바이유 기준



자료 : 블룸버그, 10.22일 기준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정부는 경제활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로 2019년 상반기까지 2조 3000억원+α, 2단계까지 포함하면 6조+α 규모다.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과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올해안에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통 주력산업혁신과 신성장 분야 등의 시설투자에, 5조원 규모로 노후설비·건축물, 생활 SOC 개선 등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가동해 기업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존 부처별 노후산단 지원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제조업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을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등 산업단지 중심의 제조업을 스마트화하고, 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세제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입지지원도 대폭 강화하는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한다.

한편 내년에는 올해보다 8조 2000억원 늘린 26조 1000억원을 주거(15조 2000억원), 환경 및 안전(6조 5000억원), 신재생에너지(4조 4000억원) 분야에 투자한다. 아울러 노후상수도 정비 지원 대상을 군에서 시지역까지 조기 확대하는데, 도심의 노후청사 재개발시 체육시설·주차장 등 생활 SOC 시설이 포함된다.

[표 1] 투자활성화 방안

투자 활성 화	① 민간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조기 착공 ▶ 투자 촉진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및 세계지원 강화 ▶ 스마트산단 본격 구축
	② 공공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투자프로젝트 연내 선정·지원 및 입지규제 개선 병행 ▶ 주거, 환경·안전 등 국민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는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그동안 풀리지 않던 핵심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새로운 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와 공유경제, 관광 관련 규제를 시작으로,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기준을 설정해 스마트폰과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을 넓히고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고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숙박공유 허용범위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의 제도정비와 더불어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법령상 절차에 따라 조속히 지정해 해안개발 입지규제를 완화하는데, 산악관광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휴양관광특구를 지정해 중첩된 산지규제의 완화도 추진한다.

[표 2] 혁신성장 방안

혁신성장	① 핵심규제 혁신 :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규제혁신 1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및 원격협진 활성화 ▶ 교통·숙박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 확대 ▶ 해양관광진흥지구 및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통한 규제완화
	② 산업구조 고도화 (Innovation Dynamics)
	▶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업그레이드(연내 추진전략 마련)

발표 내용 중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일자리 지원은 업종별, 서민과 자영업자, 노동시장 현장애로, 계층 및 지역별 일자리 강화 등 이다.

먼저 업종별로는 모든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신·기보 우대 보증 1조원 공급, 조선 기자재 업체에는 3000억원을 보증 지원한다. 섬유·패션 업종은 봉제·염색 분야의 공정 자동화와 고객 맞춤형제조 등 스마트 제조시스템 개발을 위해 2021년까지 110억원을 지원하고,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문화 콘텐츠 투자펀드는 내년까지 3600억원 추가 조성한다.

특히 11월 6일부터는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는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통해 약 2조원의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용자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소상공인 제품 500개사의 흡쇼핑 입점을 지원한다. 이는 2018년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500억원을 증액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노동시장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안에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영세사업자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강화하는데, 임금 지불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추가 지원해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맞춤형 일자리는 총 5만 9000개를 만든다. 청년은 일 경험을 축적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신중년 퇴직자는 이력효과를 방지하고, 어르신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계층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자리 공급은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하는데 필요시 내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청·장년층 실업자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직업훈련에 3만 5000명을 지원하는 한편, 훈련과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도 2018년 19만명에서 3만명 더 늘린다. 또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도 올해 24만명에 추가로 5000명을 더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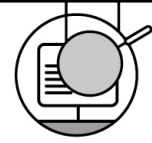
추가 일자리 지원은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하는데, 지자체 자체 수행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국고보조율 인상 등은 예외적·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매칭사업의 경우는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해 우선 추진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표 3] 분야별 애로 해소·일자리 지원

분야별 애로 해소·일자리 지원	1 업종별 지원 강화
	▶ 자동차, 조선, 섬유, 문화·관광 등 업종별 지원 강화
	2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 유류세 15% 한시 인하('18.11.6~'19.5.6)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확대
	3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 사회적 대화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연내 구체화
	▶ 5인미만 영세사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13→15만원) 연내 시행
	4 계층별·지역별 일자리 지원 강화
	▶ 맞춤형 일자리 5.9만명 지원, 위기지역 일자리·투자사업 확대
▶ 청·장년층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3.5만명 지원	

[표 4] 분야별 주요 일자리 지원사업

분야	주요 사업
1 취업역량 제고 및 안전·재해예방 등 시급한 공공수요 충족	
◆ 청년 일경험 축적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증원, 정부부처·공공기관 지원인력 등
◆ 민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인원 확대
◆ 긴요한 공공수요 대응 (사고·재해예방, 안전·시설점검)	제품안전 라돈 측정서비스, 전통시장 화재 감시
2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 행정 정보·실태조사, 필수 통계 DB구축	토지이용현황 조사(드론 활용 등),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전수조사, 국유재산 총조사 확대(빅데이터 축적)
◆ 대국민 서비스 현장인력 확충	
- 전문인력양성·정책사업 지원	자영업자 상권분석,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지원, 소상공인 제로페이 홍보
- 공공서비스 질 제고	산재보험 소규모사업장 가입 지원,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집중 계도
3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	
◆ 취약계층 지원	농촌영농·어항·해양 환경 개선 지원
◆ 위기지역 지원	지역 환경정비, 행정정보 실태조사



세종시 주요 경제 ISSUE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 세종에 100만평 국가산단



자료 : 정부 24, 국정 알림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584655?srchOrder=&srchOrgCd=ALL&srchNewsAstCd=ALL&srchSiDIFmt=2018.08.01&srchEdDIFmt=2018.10.26&srchTx=%EC%84%B8%EC%A2%85%EC%8B%9C&initSrch=false&pageIndex=2&hideurl=N>

지난 8월 31일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가 사업시행자로 연서면 일원에 100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단은 신도시 확장과 청춘초치원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신도시~조치원 개발축에 위치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다. 대외적으로는 대덕연구단지, 청주(오송) BT 및 천안·아산 IT 집적지 등 충청권 대규모 특화산단을 연결하는 기술융합의 최적지로, 중부권 산업벨트 형성을 통한 신성장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시는 이곳에 신도시 내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반기술 구현에 필수인 첨단 소재·부품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스마트시티 분야의 실증과 창업, 기업성장 등 모든 단계의 입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갖춘 복합형 산업단지이자 직주근접 및 편의기능이 어우러진 고용친화형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단은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수요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사업규모 등을 조정해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산업단지 지정을 받게 된다.

세종국가산업단지가 목표대로 2026년 조성되면 지역 내 소규모 산단의 융합발전을 위한 대표 산업입지 및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배후 산단으로서 지역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¹⁾

» 매월 19일은 일구하기데이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매월 19일은 일구하기데이” 일자리 늘린다”.
2018년 10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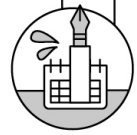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를 위해 매월 19일을 일자리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 공유를 위한 ‘일구하기데이(19day)’로 지정·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 고용률은 올해 연초 63.6%에서 9월말 66.1%로 2.5%p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2.4%에서 2.3%로 0.1%p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일구하기데이 운영을 통해 고용여건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실질적인 고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매월 일구하기데이에는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채용행사와 일자리 관련 주요 정책과제 및 재정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월간 일자리 점검 회의’가 개최된다. 월간 회의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사업, 일자리 로드맵 과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이행과 집행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시는 각 사업의 문제점을 발굴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부진사업을 집중 관리하는 등 월간 회의를 일자리 창출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세종고용복지+센터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이번 ‘10월 일구하기데이’ 행사에서는 관내 식품안전인증기업 등 9개 우수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구직자들에게 현장 면접과 취업기회를 제공했다.²⁾

1)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세종에 100만평 국가산단 들어선다”. 2018년 8월 31일

2)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매월 19일은 일구하기데이” 일자리 늘린다”. 2018년 10월 19일



Economic Trends

고용안전망: 소득보장과 능력개발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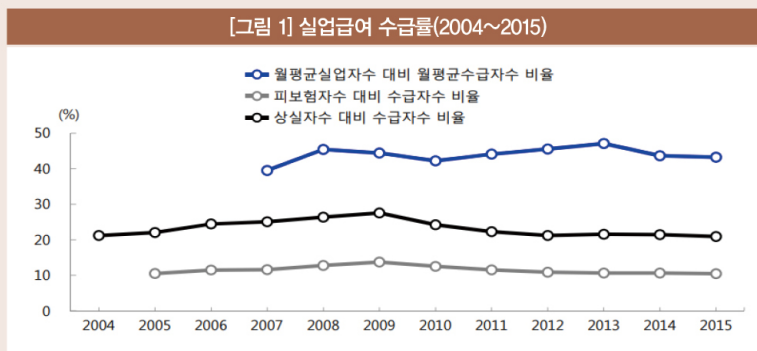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8년 10월호)에서 인용하여 재구성

고용안전망 현황

1. 생산가능연령대 소득보장제도

생산가능연령대 인구의 소득단절에 대응하는 제도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가 일차적이다. 전체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약 40% 정도이다(그림 1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지만, 20~64세 빈곤인구 중에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2012년 기준 17.5%) 이 제도가 실업자의 공적급여 수급비율을 크게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른 나라는 실업부조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업자에게 공적급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2020년에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림 1] 실업급여 수급률(2004~2015)



- 주 : 1) 월평균 실업자수 대비 월평균 수급자수 비율 = $\{(\text{해당 연도 실제 수급자수} \times \text{평균 수급일수}) \div 365\} \div \text{월평균 실업자수} \times 100$
 - 2) 피보험자수 대비 수급자수 비율 = $\{\text{해당 연도 수급자수} \div (\text{전년도 말 피보험자수와 현재 연도 말 피보험자수의 평균})\} \times 100$
 - 3) 상실자수 대비 수급자수 비율 = $\{\text{해당연도 수급자수} \div \text{해당연도 상실자수}\} \times 100$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6), 「2015 고용보험통계연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장지연(2017)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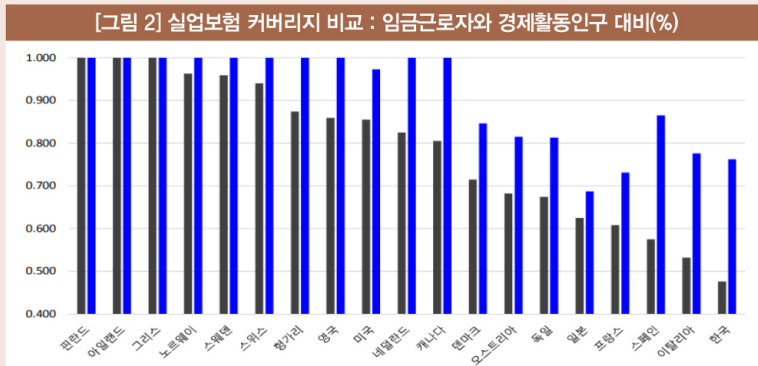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실업자의 급여수급률이 낮은 것은 실업급여 지급기준이 엄격해서라기보다는 실업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낮아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용보험의 법적인 적용대상 중에는 76%가 가입되어 있지만, 전체 취업자를 분모로 계산하면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표 1 참조). 임금근로자의 실업보험 가입률도 높은 것은 아니지만, 취업자대비 가입자 비율은 다른 나라와의 격차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는 자영업자를 배제하는 고용보험제도의 특성과 노동시장에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현실이 결합된 결과이다.

[표 1] 고용보험 적용과 가입 사각지대(2016)

	취업자			
	비임금 근로자	임금근로자		
		적용제외	미가입	가입
	법적 사각지대		실질적 사각지대	
근로자수(1,000명)	6,901	3,062	3,942	12,623
취업자 내 비중(%)	26.0	11.5	14.9	47.6
임금근로자 내 비중(%)		15.6	20.1	64.3
적용대상 근로자 내 비중(%)			23.8	76.2

주 : 1)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은 공무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5인 미만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65세 이상,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제외),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6. 8.



자료 : Social Policy Indicator Database(SPIN). 우리나라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가지고 필자가 계산.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그 외 다른 나라는 2010년 기준.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은 OECD 평균이 0.54%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0.37% 수준에 머문다(2016년 기준, OECD).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부실한데, 대부분의 예산이 직접일자리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고용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율만 보면, OECD 평균이 0.13%인데 비해서

우리는 0.04%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용보험에서 직업능력개발에 사용할 보험료를 사업주로부터 받고 있지만, 이것은 대부분 기업이 자신들의 종업원을 재교육하는데 사용된다. 노동자가 직장을 유지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는 사용하기 어렵다. 그밖에 직업훈련은 주로 구직자의 재취업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 사회적 보호 대상의 변화 : 특고(특수고용노동자), 종속적 자영자, 프리카리아트

사회적 보호제도가 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배경에는 노동의 프리카리아트화가 있다. 가이 스탠딩(2015)은 ‘불안정한(precarious)’과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를 합쳐서 이 단어를 만들고,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삶 자체가 불안정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에 속하는 자들의 예시로는 단기간의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단시간노동자, 그리고 일감이 충분하지 않은 독립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단어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단순히 고용의 단기화나 불안정성에 있지 않다.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의 범주에서 추방당하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더욱 중요하다. 노동의 프리카리아트화는 노동계급의 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장지연, 2017¹⁾). 기간제나 임시직 노동자에 비해서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더욱 접근이 어려운 범주가 자영업자이다.

최근 증가하는 자영업자 범주의 특징은 임금노동자의 특성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노동자의 고용지위를 정의하고 규모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ILO(2018)는 고용지위에 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핵심은 독립적 근로자(independent workers)와 종속적 근로자(dependent workers)로 구분하고 ‘종속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s)’ 범주를 구분하여 종속적 근로자에 포함시키는 데 있다. 종속성 여부는 업무수행 방식에 대해 자율성을 갖는 정도를 반영하는 ‘운영상의 종속성(operational dependence)’뿐 아니라 ‘경제적 종속성(economic dependence)’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영국에서는 종속적 계약자의 범주를 분명히 하고 이들의 법적인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House of Commons, 2017a, 2017b²⁾).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될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근로자(worker)’ 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거부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기업 측에서 근로자의 고용상태를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종속적 계약자 또는 종속적 자영자는 임금노동자의 특징과 자영자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있는데, 같은 사업영역이나 직종일지라도 개별 사례마다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난다. 결국 경계를 찾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견이 갖는 함의를 우리나라 제도개선에 적용해 보면, 특정 직종에 해당하는 사례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고 같은 보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직까지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디지털 전환의 시대(또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고용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면 이것도 기존의 사회보험이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1) 장지연(2017), 「고용 노동브리프 제 69호(2017-02)」, 「고용형태 다양화와 노동시장 불평등」, 한국노동연구원.

2) House of Commons(2017a), “Self-employment and the gig economy”. (2017b), “Employment status”.

» 이론적 배경과 제도사례

1. 고용을 넘어서는 사회적 보호: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사회적 인출권

일자리의 부족과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고, 장기간의 안정된 고용(임금노동)을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험제도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는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기본소득제이다.

기본소득이란 ‘자산조사나 근로조건 부과 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개인단위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 정의된다(반 빠레이스, 2010³⁾). ① 자산조사가 없고, ② 근로이력이나 기존의 기여(contribution)에 연동되지 않으며, ③ 구직활동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핵심적인 가치는 ‘보편주의’이다. 기본소득이 갖는 의의는 낙인효과 없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여줌으로써 인권과 자유의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 생산성은 높으나 일자리가 적은 시대에 적합하다는 점, 그리고 수급단위가 개인이고 노동이력을 불문한다는 점에서 탈가부장제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장지연 외, 2017⁴⁾).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기본소득의 정신을 살리되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의 어느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변형된 형태의 제도도 가능하다. 이것을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 또는 ‘기본자산(basic asset)’이라고 한다. 사회적 지분급여는 성인이 되었을 때 공평한 조건에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시금이다. 사회적 지분급여는 단기적 소비주의의 위험을 피해가는 것일 뿐 아니라, 기회의 평등, 출발선 맞추기라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에 더욱 충실한 해법이다(엑커만과 알스토틸, 2010⁵⁾). 영국에서는 토니 블레어 총리가 2001년 재선거 캠페인에서 출생 시점에서 750달러 정도의 ‘베이비 본드(baby bond)’를 설정하고 이후 누적적으로 입금되어 18세 시점에 7,500달러 만큼의 자산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은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유효하다는 점에서 일부 좌파진영의 지지를 받을 뿐 아니라, 소비여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자, 특히 플랫폼기업의 CEO들의 지지도 얻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로 인한 계층화의 부작용이 지적되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벽이 높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이 근로유인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미약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 있는 성인에게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널리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3) BMAS(2017), "Personal Employment Account: International Models and Experiences," Forschungsbericht 493.

4) 장지연 외(2017), 『디지털 기술발전예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적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5) 엑커만, 브루스 & 앤 알스토틸(2010), 『왜 사회적 지분인가?』, 브루스 엑커만 외 지음, 너른복지 연구모임 옮김.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나눔의집. Bruce Ackerman, Anne Alstott and Philippe Van Parijs(2006) Redesigning Distribution Verso.

기본자산을 한 단계 더 변형하면 ‘생애대출(life loan; Mau 2015⁶⁾)’이나 ‘사회적 인출권(social drawing right, droits de tirage sociaux; Supiot 2016⁷⁾)’에 도달하게 된다. Mau(2015)는 생애 신용(life credit)을 도입하여 개개인이 교육계발을 자유로이 하고, 시간주권을 가지며 사회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universal rights)를 설계하자고 제안하였다.

아직까지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 검토된 제도들 중에서 이러한 이념에 가장 근접한 제안은 독일의 개인활동계좌제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은 노동4.0백서에서 ‘실업보험에서 고용보험으로’ 평생학습모델과 실업보험의 개혁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는 ‘실업보험’이 아닌 ‘고용보험’의 모델을 제시한 권터 슈미트의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Schmid 2015, 2017⁸⁾). 이를 기반으로 독일정부는 개인고용계좌(personal employment account)의 국제사례를 검토하고 새로운 수정모델을 제안하였다(BMAS, 2017⁹⁾). 독일 노동부장관은 2017년 8월 베를린에서 열린 OECD 컨퍼런스에서 평생학습모델에 기반하여 훈련과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활동계좌제의 필요를 역설하고, 모든 시민이 개인활동계좌로 EUR 20,000을 받는 제도의 안을 제기한 바 있다.

2. 고용과 연계된 사회적 보호: 사회보험

사회적 지분급여나 사회적 인출권은 모든 이에게 일정하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자원이 있어 야 한다는 개념인데 비해 사회보험제도는 보험가입이력을 통해서 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보험가입이력을 근로이력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무엇보다 임금노동자와 고용주의 기여가 중심이 된다. 이러한 특징은 전통적인 노동자계급의 규모와 비중이 축소되는 환경에서는 효과적인 사회적 보호수단이 되기 어렵다.

모든 이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를 관대하게 운영하는 것은 재원마련 측면에서 어려울 뿐 아니라, 현 시점에서 사회적인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 나아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소득활동을 해온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해주는 보험기능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사회보험 방식의 소득보장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시장 환경변화로 인하여 사회보험제도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변화의 방향은 크게 두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첫째는 보호대상을 전체 취업자로 확대하고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보호방식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보호해야 할 사회적 위험(사건)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다.

6) Mau, S.(2015), Der Lebenschancencredit, Gutachten für die Friedrich Ebert Stiftung, Beyond employment, The Supiot report, New edition 2016, Editions Flammarion.

7) Supiot, Alain(1999), 'Au-delà de l'emploi: Rapport pour la commission europeen, Flammarion, Supiot, Alain(2016), Beyond employment, The Supiot report, New edition 2016, Editions Flammarion.

8) Schmid, Günther(2015), "Sharing Risks of Labour Market Transitions, Towards a System of Employment Insurance,"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53(1) March 2015 0007-1080, pp.70~93. Schmid, Günther(2017), Transitional labour market: Theoretical foundations and policy strategies, London: Palgrave MacMillan.

9) BMAS(2017), "Personal Employment Account: International Models and Experiences," Forschungsbericht 493.

프랑스는 2018년 기존에는 배제되어 있던 자영업자를 실업보험체계에 전면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임금의 2.4%를 납부하던 임금근로자의 실업보험료를 폐지하는 대신 일종의 사회보장조세인 일반사회기여금(General Social Contribution)을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단절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려면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덴마크도 2017년에 자영업자와 비정형근로자에게도 임금노동자와 같은 실업보험제도를 적용한다는 보고서와 합의문을 발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회는 실업보험 수급자격이 근로자·자영업자 등의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소득활동을 기준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소득세를 기준으로 보험자격 및 기여율이 결정되며, 이를 통해 조세시스템과 실업보험시스템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커다란 흐름은 보호해야 할 생애 사건의 확대이다. 실업과 상병에 대한 보호에 더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단절을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소득보장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실현되었다. 최근에는 노동시장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두루 보호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출되고 있으며, 특히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이 지원되는 제도가 결합되는 추세에 있다.

ILO '일의미래위원회'는 권터 슈미트의 이행노동시장론(Transitional Labour Markets, TLM; 2015, 2017¹⁰)과 알랭 쉬피오의 '사회적 인출권' 개념을 기반으로 생애단계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관리 방법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ILO, 2018¹¹). 직업교육에서 직장 생활로,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로, 생계노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넘어갈 때와 같은 노동 생활의 이행기에서 위험국면을 보다 안전하게 해주는 "사회적 위험 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페이퍼에서는 구체적인 제도로 개인활동계좌의 도입을 예로 들고 있다. 프랑스는 실업·취직, 고용계약 형태, 이직 등과 관계없이 각 개인의 사회적 권리로서 훈련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화하였다. 특히 2018년 1월 1일부터는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에까지 수급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취업자·실업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보다 보편적인 제도를 설계하였다. 2004년에 개인훈련권리(DIF, Droit Individuel à la Formation; individual training right)와 개인휴가제도(CIF, congé individuel de formation)를 입법화한 바 있다. 전자는 노동자에게 근로기간에 비례하는 시간을 할당하여 평생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정규직 노동자에게 제한되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후자는 근속연수 2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직업교육을 위한 휴식권리를 보장하되, 교육기간 동안 교육비뿐 아니라 통상임금의 80~90%를 지급한다.

10) Schmid, Günther(2015), "Sharing Risks of Labour Market Transitions. Towards a System of Employment Insurance,"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53(1) March 2015 0007-1080, pp.70~93. Schmid, Günther(2017), Transitional labour market: Theoretical foundations and policy strategies, London: Palgrave MacMillan.

11) ILO(2018a), "Statistics on work relationships". (2018b), "Managing transitions over the life cycle," Issue Brief #7,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ILO.

월간 Monthly Sejong Economy

세종 경제

www.dsi.re.kr



부 록

- 용어해석



용어해석



광공업 생산지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광업제조업동향조사를 통하여 광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업에 대한 생산활동의 수준과 그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단,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서 '생산'은 사업체의 자체생산과 위탁생산만 광공업생산지수에 포함하여 조사)로서 주요 613개 품목을 생산하는 약 8,000개의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되는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생산실적 등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지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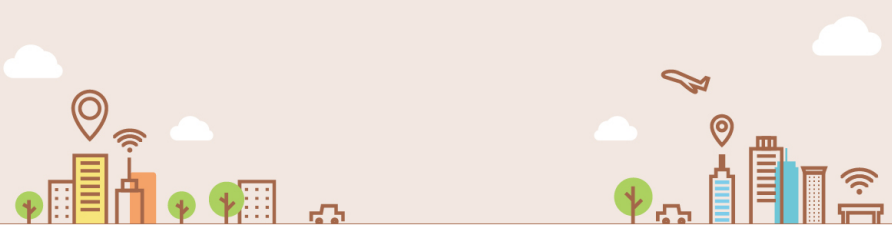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생산자의 판매활동과 광공업 및 전기·가스제품의 출하동향을 나타내는 지수로 주요 613개 품목을 생산하는 약 8,000개의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생산자 제품 출하지수 작성



생산자제품 재고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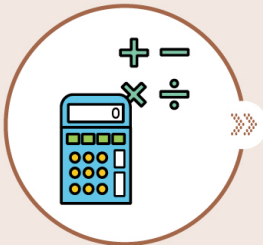
광업 및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재고의 변동을 파악하는 지수로서 생산자가 보관하고 있는 반제품, 재공품과 유통업자의 재고는 제외하고, 광공업생산지수의 대표 품목 613개 중에서 재고의 의미가 없거나 주문생산 품목 등을 제외하고 534개 품목을 조사하여 생산자 제품 재고지수 작성





소상공인 경기지수

‘소상공인’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로 정의하며, 소상공인의 경기 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고 경기대응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지수산출방법

$$BSI = [(매우악화\ 응답빈도 \times 0) + (다소악화\ 응답빈도 \times 50) + (동일응답\ 빈도 \times 100) + (다소호전\ 응답빈도 \times 150) + (매우호전\ 응답빈도 \times 200)] / (지역별\ 응답빈도\ 수)$$



건설수주 현황

건설 수주 현황은 건설업조사 결과 중 일반(종합)건설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F. 건설업 중 국내 건설공사에 한정(단, 해외 건설공사는 제외). 일반건설업체의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을 공사종류별로 조사하여 국내건설경기 동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HBSI

HBSI(Housing Business Survey Index) 100을 기준으로 100이상이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은 것이고, 미만이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



월간 Monthly Sejong Economy
세종 경제



- 연구진** 김성표(세종연구실 연구위원)
이정윤(세종연구실 위촉연구원)
- 발행일** 2018년 10월
- 발행인**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이춘희(세종특별자치시장)
-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정책과
- 주소**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 연락처** Tel. (042)530-3572 / Fax. (042)530-3599
- 인쇄처** 신진기획인쇄사 Tel. (042)638-7887

월간 세종경제의 파일은 대전세종연구원(<http://www.dsi.re.kr>)
및 세종특별자치시(<http://www.sejong.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세종 경제

MONTHLY SEJONG ECONOMY